



33만 동문의 정성으로 지어진 장학빌딩

지령 400호 ... 33만 서울대인의 목소리 담아

동문들의 친목과 소통의 큰 마당이였다



창간호 (1976. 4. 24)



300호 (2003. 3. 15)



올해로 개학 116주년을 맞이한 모교 관악캠퍼스 정문

관악출추

서울대동창회보가 2011년 7월호로 지령 4백호를 맞았다. 지난 1969년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창립됐으나 동문들의 호응이 적어 6대 閔復基회장 때인 1976년에 처음으로 동창회보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창간호는 격월간 흑백 16면으로 출발해 혁신을 거듭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이제는 32면 전면 컬러로 10만부를 발간하고 있다.

동창회보는 동창회 발전사와 궤적을 같이 한다. 서울대학교는 초기에는 일종의 연립대학의 성격으로 단과대학별 동창회가 창설돼 거의 연대감을 가지지 못했다. 흩어져 있 다시고 한 단과대동창회를 하나로 묶어 총동창회를 창립하고, 동창회보를 발간하면서 동창회간의 유대를 강화해왔다. 동창회와 33만 동문들의 눈과 귀, 입으로써 동창회와

모교, 모래알 같았던 각 동문간의 결집력을 다지고 참여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해외 동문들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위상의 월간지로 연륜 35년의 원숙한 장년기에 들어섰다.

서울대동창회보는 단순한 소식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서울대 폐교론이 나왔을 때 당당한 논리로 폐교론의 부당

지령 400호 금자탑

성을 널리 알렸고,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의 전선에 서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데 동력 역할을 했다. 모교 법인화 추진에도 적극 기여함으로써 성공을 이끌어냈다. 특히 장학빌딩 건립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전 동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벽돌 한 장 쌓기'운동은 동창회보의 자랑이자 업적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동창회보는 33만 동문들뿐 아니라 미래의 동문인 모교 재학생과 교수들의 소통의 마당이다. 범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고 사랑을 실천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창으로 인연을 더욱 다지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종합 매체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자부한다.

林光洙총동창회장은 기념사에서 "동창회보에 실린 모교 발전상과 아름다운 교정 그리고 동문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서울대인이라는 뿌듯함이 되살아나곤 한다. 동문들이 학창시절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추억의 장이 되고 모교 사랑의 실천과 나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4백호는 동창회가 심혈을 다해 추진했던 개교 원년 찾기, 법인화, 장학빌딩 건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해와 맞물려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동창회 회장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서울대인의 네트워크 강화에 열성을 더할 것을 다짐한다.

(金鎮銅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최근 출간된 權舜赫 前총장의 에세이집 ‘青春萬世’에는 서울대 영욕의 역사를 새삼 돌아보게 하는 졸업식史부분이 있다. 1958년 2월 26일 졸업식에 참석한 李承晩대통령이 尹日善총장의 요청에도 축사를 사양하던 모습, 옆에 가서 각하의 바람막이를 자처하며 아부하던 어느 학장, 본인이 총장이던 1982년 南惠祐총리 축사 때 졸업생들이 आयु하던 일과 최근 졸업생 대표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바뀐 상황 등.

美군정 시절이던 1947년 제1회 서울대 졸업식(개교 원년과는 별개) 이후 1974년 제28회 졸업식에 참석한 朴正熙대통령이 유신과 긴급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로 봉변을 당할 때까지 서울대 졸업식은 국가적 행사였다. 그 뒤 총리와 문교부 장관 등으로 정부 참석자의 격이 낮아졌다.

5공 말기인 1986년 2월 26일 朴奉植총장이 졸업식사를 읽을 때 학부 졸업생 2천여 명이, 孫秉錫장관 치사 때는

대학원 졸업생 1천여 명이 퇴장했다. 다음해에는 퇴장 대신 돌아앉아 노래를 불렀다. 1989년부터 5년간은 총장 주관의 순수 학내행사로 바뀌었고, 졸업식 참석률이 낮아 지자 단과대학별 졸업식 방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1994년 동문인 金泳三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불상사는 없었지만 대운동장에 마련된 좌석의 절반도 차지 않

는 등 썰렁했다. 그 뒤 1999년 2월 26일 졸업식에 DJP 연합정권의 金鍾泌총리가 참석했으나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연출됐고,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 金大中대통령이 연설했다.

졸업식장에서의 집단행동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행사를 서울대 행사로 축소하는데 일조하고, 비지성적 행태로 비판도 받았지만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감의 발로로써,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법인에 반대하며 한 달 가까이 총장실과 행정관을 점거한 일부 재학생들의 행위는 어떤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나를 때려라”고는 못할망정 그런 학생들을 부추긴 교수들도 있었다. 학생들을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고, 원칙과 학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지도 못한 대학 지도부의 자세는 더 심각한 문제다. 서울대에서는 물론 세계의 어느 유수 대학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세계 일류대학은 논문 편수만으로 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장과 교수, 동문, 재학생 모두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오각성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

李 容 式

문화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지령 400호 즉시

빛으로 향기로 우리의 꽃길

金 后 蘭(가정교육53입)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시인

알고 싶어라 존재의 실상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저기 밤하늘 짙 채운 별무리들
태양보다 더 밝은 별조차
부서져 블랙홀로 빨려들어간다지

생성과 소멸의 話頭는
영원한 비밀이다
광막한 우주에 외로운 지구
그러나 우리에게겐 너무나도 큰 세계
풍요와 기근, 전쟁과 평화가 파도치면서
생명의 결국한 의지가 일어서고
정서의 고리로 이어지면서

새벽의 청정한 새 기운으로
이 땅에 활기찬 설제도를 그려간다
빛으로 향기로 바람으로
생명 이끄는 힘
꿈이 있는 성숙의 빛을 내뿜는
우리의 길이 보인다
무리져 피어있는 꽃길

동문칼럼

지난 6월 9일 세계 과학계 거목 화이트사이즈 하버드대 교수, 게놈 시퀀싱 선두주자 켄익 스탠 포드대 교수, 그래핀 분야 권위자 金必立(물리86-90)컬럼비아대 교수, 나노 바이올로지 분야 천재 과학자 朴弘根(화학86-90)하버드대 교수, 한 사람씩 초대하기도 어려운 네 명의 석학이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 강단에 같이 섰다. 기획단 출범 1주년에 즈음해 개최된 ‘글로벌 R&D 포럼 2011’ 참석차 한국을 찾은 R&D전략기획단 해외자문위원의 일원인 이들이 시간을 쪼갰 것이다.

2백50석 강의실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고, 후텁지근한 날씨로 실내 공기는 좀 췌췌했다. 나의 소개를 받은 이들은 땀 흘리며 열강했고, 학생과 교수들은 경외심과 진지함으로 미동도 없었다.

화이트사이즈 교수, 내가 만나 본 석학 중 미래 통찰력에 관한 한 세계 최고라고 감히 단언한다. 켄익 교수, 게놈 시퀀싱 사업화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자신을 실험 마루타로 삼은 열정의 소장파 과학자다. 金必立, 朴弘根 두 교수, 자랑스러운 대학 후배며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학문적 동반자, 그리고 나보다 한

참 어리지만 오랜 知己다. 이 둘은 대학 동기며 절친이다. 한국 최초로 과학 분야 노벨상이 나온다면 둘 중 하날 거라고 내가 슬쩍 얘기하면 손사래 치는 몸매 뻔 겸손함도 서로 닮았다. 이들이 왜 한국의 R&D를 자문하겠다고 나섰을까? 金과 朴, 두 교수야 애국심이 발동했다 치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은? 나와 친분만으로 수락한 건 아닐 테고... 이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며, 또 이 일이 결국은 자기들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요즘 K-POP이 유럽을 휩쓸고, 우리 자동차가

미국을 강타한다. ‘부지런히 선진국을 쫓는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나라’로 진화 중이다. 과학 기술도 이 여세를 몰자. 밖으로 나가 신기술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나, 해외 석학들이 자주 한국을 찾도록 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른바 ‘이노베이션 매그넷(Innovation Magnet)’이다. 지난 6월초 서울에서 개최한 ‘글로벌 R&D포럼’도 이의 일환이었다. 개별 산업 단위의 R&D포럼은 더러 있지만, 이렇게 R&D를 매개로 전 산업을 망라한 포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하드웨어의 국제 행사를 매끄럽게 치렀다고 만족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한국에 쏟아 내고 간 지식과 미래 통찰력을 소프트웨어의 잘 버무려 성과로 만들어 내는 일, 더 나아가 한국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의 포텐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 주고 스스로 느껴 한국을 다시 찾도록 하는 일.

포럼은 3일이었지만 이 일들은 앞으로 3년, 아니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아직 절반의 성공인 이 포럼의 목표 달성은 영구 미제로 남는다. 미국에서는 R&D에 관한 한 ‘실패(Fail)’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 부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부럽기만 하면 지는 거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



黃 昌 圭
(전기공학72-76)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장

이노베이션 매그넷

를 만들면 된다. 이견 나의 뜻이다. 태생적으로 R&D는 서서히 성과가 나

온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천천히 가지는 말엔 동의할 수 없다. 창조와 기적에도 產苦의 과정은 필수적인데, 이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R&D기획단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국가 R&D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보는 일, 체감하기는 어려운 R&D이지만 선진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는 일, 따뜻하고 감동적인 국가 R&D를 실현하는 일, 내게 남겨진 중요한 숙제다. 하지만 주어진 임무만 해 놓고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지는 않을 작정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蔡耕王,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玄智愛 광고부장 金千鶴

경축

동창회보 지령 400호를 맞이하며

林光洙회장 기념사



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발딩 건립과 관련해 그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 동문들의 명단 및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더 많은 동문들이 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년교례회, 정기총회, 바둑대회, 골프대회,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행사와 소식을 담아 동창회 참여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으며, 모교의 소식도 충실히 전달해 선후배간의 튼실한 소통의 끈이 돼왔습니다.

특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발굴, 소개해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이제 동창회보는 동문들에게 소식과 정보

존경하는 33만 동문 여러분!

‘서울대동창회보’ 4백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5년 동안 ‘동창회보’는 33만 서울대 동문들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국내외 동문들에게 모교와 총동창회의 진솔한 소식을 전해 주고 있는 동창회보의 발자취는 모교 역사의 일부이자 총동창회의 역사 그 자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주신 林光洙총동창회장님(발행인), 孫一根상임부회장님(편집인), 그리고 49명의 논설위원 동문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는 금년 동문들의 염원을 담은 ‘新동창회관(장학발딩)’ 개관을 통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창회관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건물로써 동문님들의 자긍

吳然天총장 축하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허브의 역할을 동창회보가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33만 서울대인을 대변해온 ‘서울大同窓會報’가 동문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2011년 7월로 지령 4백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76년 4월 故 閔復基 前회장님께서 처음으로 동창회보를 발간한 이래, 金在淳 명예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의 관심이 만들어낸 경사입니다. 그리고 매월 열리는 편집회의를 통해 보다 나은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해 진력해온 편집인과 49명의 논설위원들, 그 외 회보제작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이 이룬 결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35년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장단의 관심과 논설위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동창회보는 이제 매월 10만부를 발행하는 권위 있는 월간지로 자리매김했으며 동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서울대인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 각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동창회보가 지니고 있는 사명과 의의는 실로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서울대 폐교론이 나왔을 때는 냉엄한 논박을 실어 폐교론의 부당성을 알렸고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논설위원들의 칼럼과 모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모교 평의원회의의 결을 이끌어냈고 모교 총장께서 10월 14일 개교기념식에서 ‘개학 1895년, 종합대학으로서의 통합개교 1946년’을 선포함으로써 모교는 세계 일류대학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116년이라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

를 전달하는 소식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흩어져있는 동문간 교류를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서, 선후배 동문의 정겨운 대화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동문 여러분!

보다 나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모교가 배출한 인재가 33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문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를 생각하면 무한한 기쁨과 자긍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어떤 공동체라도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단단한 결속력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우리 동창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진정한 소통이 없다면 33만 동문의 마음과 소리는 흩어져버릴 것입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인연도 과거의 기억에 머무를 뿐 현재 재성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동문들을 하나로 묶고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허브의 역할, 그 역할을 동창회보가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창회보는 모교와 동창회의 가교 역할은 물론 동문과 재학생들의 제안도 충실히 담은 종합적인 매체로서 더욱 알차고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창회보에 실린 모교 발전상과 아름다운 교정 그리고 동문들의 눈부신 활약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영원한 서울대인’이라는 뿌듯함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대인을 결집시켜 네트워크 강화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온 동창회보가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에게 학창시절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추억의 장이 되고, 모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다시 한 번 그동안 동창회보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면서 모교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매체 역할을 기대합니다.”

심을 고취하고 서울대학교와 33만 동문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총동창회는 향후 회관 운영의 수익금 전액을 모교에 지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교의 백년대계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주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교의 구성원들은 총동창회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형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국가의 보호와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에 안주해서는 세계 유수 대

학들과의 대등한 경쟁이 더 이상 어렵다는 매우 절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이 소위 민영화나 사립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자율성을 갖고 계속 국립대학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국가적 책무를 보다 더 성실히 수행하면서,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대동창회보’는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면서 모교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매체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입니다.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0월 16일 일요일에 만나요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

제32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를 오는 10월 16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해 교내를 둘러보거나 관악산을 등반하고 교내 버들골에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동기들과 좋은 만남과 추억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9시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대회장소 : 모교 노전강당 앞 버들골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 가족

◆참가비용 : 없음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등

◆경 품 : 풍성한 선물 추첨
(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문의전화 :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서울대학교 총장 吳然天

지령 400호
기념 특집

동창회 활성화 위해 1976년 창간호 발행



본보가 지령 4백호를 맞이했다. 1976년 4월 24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회보를 발간하는데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제호가 바뀌고 발행부수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4백호를 기념해 지난 35년 동안 본보가 외형상 어떻게 변화했으며,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되짚어보았다. (직책 표기는 해당 연도 기준)

동문 결속·유대 강화 위해

회보 발간 전격 결정

본회는 1976년 3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제6대 閔復基회장을 비롯해 李錫範상임부회장, 元容奭·崔主鎬부회장, 李聖秀감사, 鄭鳴秀사무처장, 모교 尹天柱총장, 丁炳休학생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동창회 홍보와 동문 상호간의 긴밀한 결속 및 유대 강화를 위해 동창회보를 발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3월 25일 李錫範상임부회장, 모교 尹天柱총장, 金榮國대학신문 주간, 金哲洙법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보 창간 자문회의가 열렸고, 3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회보 첫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1976년 4월 13일 문공부에 등록(바-618호)을 마친 본회는 4월 24일 정기총회를 맞아 '서울대학교 동창회보'를 창간, 4천부를 배포했다.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총 16면으로 겉표지는 아티지를 사용하고 내지는 신문용지로 인쇄했다. 기사는 국문과 영문, 한문을 혼용해 사용했다.

閔復基회장은 창간사에서 "단과대학동창회로서는 살리기 어려운 소식이나 학교 차원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보도, 논평 또는 자료 게재 등에 관해 본회에서 다루기에 알맞은 것을 편집내용으로 삼는다는 것이 회보 발간의 주된 취지"라고 창간 배경을 설명했다.

1980년 3월호부터

격월간서 월간 전환

창간호가 발행된 날짜인 24일에 맞춰 격월간으로 발간되던 본보는 1978년 12월 16일 열린 편집회의에서 매 흡수달 1일로 발행일을 변경했다.

그러나 매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동창

회 행사들이 많아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자세히 전달하려면 발행일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1977년 2월 15일자(제227호)부터 발행일자를 기존 1일에서 15일로 변경했다. 한편 1979년 8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보를 1980년 3월 1일자(제24호)부터 월간으로 발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보는 1980년 4월 13일 문공부에 월간등록(라-2448호)을 마쳤다.

1980년 3월 1일자(제24호)에 실린 관악춘추를 요약해보면 "본 회보는 그동안 동창회 목적사업인 친목 도모와 유대 결속의 교량 구실을 꾸준히 해왔다. 이런 일이 이제부터는 격월이 아니라 매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의 월간화이다"라며 월간 발행의의를 밝히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32면 확대·전면 컬러화

16면으로 시작한 본보는 재정상의 문제로 1979년 9월 1일자(제21호)부터 발행면수를 12면으로 축소했다가 1982년 5월 1일자(제50호)부터 다시 16면으로 증면했다.

본보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1987년 1월 1일자(제106호)부터 20면으로 늘렸고, 1998년 5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열린 편집회의에서 6월 15일자(제243호)부터 기존의 내지(중질지) 16면과 별지(신문용지 46.6g) 8면의 이중체제에서 신문용지(54g) 24면의 일괄체제로 전환해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01년 3월 15일자(제276호)부터 지면을 32면으로 확대, 발행하고 모교의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70여 개 연구소 등을 보다 심도 있게 홍보하기 위해 모교 소식면을 늘렸다.

재정 문제로 지면을 축소해야 했던 1979년 7월 1일자(제20호)부터 표지가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뀌기도 했으나 1982년 5월 1일자(제50호)부터 다시 표지를 컬러로 인쇄하기 시작했다. 이후 컬러면은 꾸준히 늘어 2004년 6월 15일자(제315호)부터 현재까지 전면 컬러로 발행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15일자(제341호)부터 인쇄용지를 CNP(54g)로 전환해 발간하고 있다.

편집디자인도 새롭게

제호 등 시대에 맞게 변화

본보 창간 29주년을 맞아 2005년 4월 15일자(제325호)부터 제호가 새롭게 바뀌었다. 창간 당시 규장각 古文에서 집자한 글

자체를 그대로 살리되 현대적 감각에 맞춰 종전의 군청색 바탕을 없애고 글자만 군청색으로 변경했다. 글자가 지금과 같은 검은색으로 바뀐 것은 2006년 10월 15일자(제343호)부터다.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찾기 위해 본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이 2010년 10월 7일 모교 평의회에서 '개학 1895년, 종합대학으로서의 통합개교 1946년'으로 의결됨에 따라 2010년 12월 15일자(제393호)부터 제호 우측 하단에 '開學 1895년·統合開校 1946년'을 표기했다.

전면 가로쓰기가 도입된 것은 1995년 2월 1일자(제203호)부터다. 1995년 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회의에서 지면쇄신을 위해 2월부터 전면 가로쓰기를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시사저널 安炳燦주필에게 편집에 대한 실무적인 도움을 구하고, 한국프레스센터 李炯均전문로부터 기사 및 제목에 대한 조언을 얻어 전문화,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다양한 코너 신설로

재미있는 회보 구현

본보는 지난 35년 동안 다양한 코너를 선보이며 폭넓고 다채로운 내용을 다뤘다. 창간호는 '冠岳周遊', '동창회日誌', '千字提言', '回廊記', '單大저널', '모교 소식' 등으로 꾸며졌으며 1982년 5월 1일자(제50호)에는 '서울대 정신', '내가 본 세계의 대학', '직장지부 탐방' 등을 신설해 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1987년 1월 1일자(제106호)에는 '명예교수 칼럼', '건강교실', '취미생활 코너', '신간안내', '가정한담'을 새롭게 만들었고, 1995년 9월 1일자(제210호)에는 회화나 조각 등 동문들의 미술작품을 기증 받아 소개하는 '동문작품 지상 전시회'를 게재해 동문들이 재미있게 읽고 즐길 수 있는 신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본보 창간 30주년을 맞아 2006년 4월 15일자(제337호)부터는 사회 각 분야 동문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하기 위해 '詩'와 '콩트 릴레이'를 신설하고, 재학생을 포함한 젊은 동문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면 개혁을 단행했다.

1976년 5월 12일 열린 조찬회에서 본보 편집위원회 규정이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본회 상임부회장인 李錫範동문, 모교 대학신문 주간인 金榮國교수가 선정됐다. 또 위촉위원으로 신문대학원동창회 交通彬회장, 자연대 趙完圭학장, 법

대 金哲洙교수가 선임됐다.

1977년 5월 4일 본보 편집위원으로 모교 대학신문 주간인 金彩濤교수, 한국일보 尹宗鉉 논설위원을 위촉하고, 이어 7월 6일 방송통신대 李應百학장을 편집위원으로 선임해 편집위원회를 보강했다.

현직 언론인 논설위원 위촉

매월 모여 아이디어 교환

1980년 3월 29일 본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元容奭상임부회장이 선출됐다. 이로써 동창회보 발행인 겸 편집인에 元容奭회장이 선정됐으며, 1981년 8월 12일 공석중인 상임부회장에 崔主鎬부회장을 선임함으로써 본보 편집위원장을 겸하게 됐다.

1984년 3월 24일 본회 제10대 회장에 崔主鎬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상임부회장에 유임된 李聖秀부회장이 1986년 9월 13일 문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0월 1일자(제103호)로 본보 편집인의 자리를 맡게 됐다.

1991년 10월 8일 본회 상임부회장에 선임된 張翼龍동문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보 편집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12월 20일자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1992년 1월 1일자(제166호)부터 5월 1일자(제170호)까지 편집인으로 활약했다.

이어 1992년 4월 17일 상임부회장에 새로 선임된 鄭宗澤동문이 1993년 9월 1일자(제186호)부터 2000년 2월 15일자(제263호)까지 본보 편집인 겸 편집위원장을 맡아 회보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한편 1994년 4월 18일 본회 사무처장에 李世震동문이 임명되면서 본보 편집주관을 겸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보는 회보', '기다려지는 회보'로 발행 목적을 잡고, 보다 질을 높이고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

그 첫걸음으로 1994년 5월 16일 본보 편집위원으로 모교와 언론계에 봉직하고 있는 동문 1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상임 편집위원인 모교 사회대 金榮國교수, 한국일보 孫一根이사, 모교 법대 金哲洙교수, 조선일보 崔靑林편집국장을 포함해 17명의 편집위원들이 구성됐다.

또 편집위원이란 명칭도 1994년 6월 1일자(제195호)부터 논설위원으로 변경했다.

본보 상임논설위원인 孫一根동문이 2000년 4월 10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편집인을 겸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SBS 安國正제작본부장, 문화일보 金好俊편집국장, 모교 언론정보학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서울대인 의식 고취

지령 400호
기념 특집



朴明珍교수, 대한매일 李慶衡편집국장, 매일경제신문 金鍾勳출판국장, 연합뉴스 徐玉植편집국장, 한겨레신문 高永才편집위원장, MBC 嚴基永보도본부장, 조선일보 姜天錫편집국장을 논설위원으로 추가 영입했다.

2004년 7월 13일에는 한겨레신문 李元燮 논설위원, MBC 보도국 辛京珉부국장, 조선일보 朴勝俊전문기자, 중앙일보 金鎮國 정치부장, 대학신문 李昌馥주간을 위촉했으며, 2006년 5월 17일에는 중앙일보 文昌克주필, 국민일보 尹在錫논설위원, 내일신문 鄭世溶논설주간, KBS 李東植방송문화연구팀장, 세계일보 曹炳喆논설위원, 경향신문 許英燮주간국장, 조선일보 金玄浩통한문제연구소장, MBC 鄭興實기획조정실장, 동아일보 李東官논설위원, 문화일보 李容世편집국장, 한겨레신문 李相起사람팀장, 매일경제신문 蔡耕玉유통경제부 차장, 한국일보 趙在鐸논설위원, 동아일보 鄭恩玲문화부 차장을 논설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2006년 12월 11일 모교 宋丙洛 명예교수, 월간조선 李五峰객원사진기자를 위촉했고, 2007년 8월 14일 동아일보 崔英勳 사회부장, 동아일보 許文明논설위원, 2008년 7월 14일 동아일보 裴仁俊논설주간, 2009년 4월 13일 SBS 金亨珉논설위원, 2010년 4월 26일 한국일보 李啓聖논설위원, 연합뉴스 吳在錫논설위원, 조선일보 李先敏문화부장, 연합뉴스 金永燮미디어과학부 차장, 2011년 5월 2일 조선일보 金昌均논설위원을 논설위원으로 선임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본보 논설위원은 총 49명이다.

온·오프라인 합쳐 20만부

온라인서 e메일 발송

4천부 발행으로 시작한 본보는 동문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1987년 4만부, 1998년 7만5천부, 2001년 8만7천부로 꾸준히 발행부수를 늘려오다가 2005년부터 28개 지방지부와 51개 해외지부를 포함해 매월 10만부를 동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2001년에는 본회의 사업목표를 '화문의 디지털화', '사이버동창회 활성화'로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5월 26일 e메일을 통해 8만3천여 명의 동문들에게 디지털 동창회보 5월호를 발송했다.

이로써 본회는 인쇄매체로서의 동창회보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동창회와 모교의 소식을 전하게 됐다.

한편 본보의 노후와 부피의 증대에 따른 보관상의 문제가 나타나 창간호부터 200호

까지 마이크로필름(35mm)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동문들에게서 나왔다.

홈페이지 통해 회보 열람

마이크로필름 제작·보관

이에 본회는 1995년 6월 10일 모교 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본보 2백부(창간호~2백호)를 마이크로필름(35mm)으로 제작해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본회는 1994년 10월 31일 동문이 기증한 회보를 검색하고 추가 보충해 도서관 정보관리과에 의뢰, 보관용과 열람용으로 제작을 완료했다. 또 본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동창회보'를 클릭한 뒤 'PDF/E-BOOK VIEW'를 누르면 현재에서 과거 순으로 회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돼 있다.

동문간 연대감 형성

본회·모교 발전 기여

본보는 '동문을 찾아서', '화제의 동문'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수많은 동문들을 소개하고, 본회 및 각 단과대학·지부 동창회, 모교의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33만 동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 예산부족으로 잠시 지면이 축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4천부를 발간했던 창간호에서 매월 10만부를 발행하는 매체로 성장하면서 뽀뽀이 흠어져있던 동문들에게 '서울대 가족 의식'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동문간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공헌했다고 자부한다.

2002년 3월 15일 제19대 회장으로 林光洙회장이 취임한 이후 본회와 본보에 대한 동문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원고를 기고하거나 동정 사항을 알려오는 동문의 수도 점차 늘고 있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 바둑대회, 골프대회, 홈커밍데이 등 동창회 행사에 참여하는 동문 수도 증가했다.

이제 본보는 동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식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내외 흠어져 있는 동문간 교류를 공고히 하는 매체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35년간 쉽 없이 달려온 본보 제작진은 4백호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1백년을 계획하고자 한다. 동창회와 모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에 더욱 앞장 기획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대인의 연대 의식을 고취하고, 동문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동창회보를 만드는 사람들' 모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정리=玄智愛기자)

■ 역대 동창회보 논설위원 ■

(붉은색 바탕은 현임)

성명	출신 학과	당시 직위	현직 및 경력
李錫範	경성법전32졸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前법대동창회장
尹宗鉉	상학46졸	한국일보 논설위원	평화문화연구원장
李應百	국어교육46-49	방송통신대 학장	前한국어문화 이사장
文道彬	신대원71졸	신대원동창회장	前서울신문 논설위원
趙完圭	생물48-52	모교 자연대 학장	모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金榮國	정치49-54	모교 대학신문 주간	前모교 부총장
孫一根	법학51-64	한국일보 논설위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金哲洙	법학52-56	모교 법대 교수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
金彩潤	사회52-56	모교 대학신문 주간	前모교 대학원장
金昌悅	법학53-58	한국방송위원장	前한국일보 사장
朴世熙	수학55-59	모교 자연대 교수	모교 수리과학부 명예교수
林炯斗	중문57-61	SBS 제작편성본부장	SBS미디어홀딩스 감사
朴應七	정치57-65	KBS 해설위원	前국제방송교육재단 감사
金鎮銅	국문58-64	서울경제 주필	내일신문 논설고문
南仲九	정치58-64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前화정평화재단 이사장
李淸洙	정치59-63	KBS 해설위원장	이중환교육재단 상임고문
崔靑林	경제59-63	조선일보 편집국장	前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李東和	외교59-63	서울신문 이사	서울신문 사장
宋丙洛	경제59-63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포스코전략대학 석좌교수
李炯均	정치59-64	프레스센터 전무	한국기자협회 고문
安炳燦	신대원71-75	시사저널 편집주간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
丘月瑣	사회60-67	연합통신 지방국장	순천향대 초빙교수
宋鎮赫	정치61-65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前중앙일보 논설주간
金好俊	사회61-65	문화일보 편집국장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
李年憲	불문61-65	MBC 기획조정실장	한양대 겸임교수
洪性萬	사회61-67	경향신문 편집국장	前경향신문 사장
朴紀正	사회61-68	동아일보 사회부장	전남일보 고문
李五峰	교육61-70	월간조선 객원사진기자	뉴데일리 영상사업본부장
安國正	사회63-70	SBS 제작본부장	채널A 부회장
李成俊	고고인류64-69	한국일보 편집국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朴明珍	불문65-69	모교 사회대 교수	모교 교육부총장
吳効鎭	국문65-71	SBS 편성이사	前총북 청원군수
李慶衡	사회66-70	대한매일 편집국장	내일신문 칼럼니스트
李元馥	건축66집	덕성여대 교수	덕성여대 예술대 학장
金鍾勳	농경제67-72	매일경제 출판국장	삼승브로맥스 사장
文昌克	정치68-72	중앙일보 주필	중앙일보 대기자
柳根榮	독어교육68-75	KBS 보도국장	국회의원
李昌馥	해양68-76	모교 대학신문 주간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金仁圭	정치69-73	KBS 취재주간	KBS 사장
徐玉植	동양사학69-73	연합뉴스 편집국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
高永才	정치69-74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	前경향신문 사장
姜天錫	사회69-76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주필
李元燮	외교69-76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嚴基永	사회70-74	MBC 보도본부장	前MBC 사장
裴仁俊	철학70-74	동아일보 논설주간	동아일보 주필
朴時龍	농경제71-75	매일경제 논설위원	서울경제 논설위원실장
尹在錫	화학교육71-75	국민일보 논설위원	前국민일보 카피리더
辛京珉	사회71-75	MBC 보도국 부국장	MBC 논설위원
鄭世溶	철학72-76	내일신문 논설주간	前내일신문 편집국장
李東植	영어교육72-76	KBS 방송문화연구팀장	KBS 비즈니스 감사
朴聖姬	가정관리73-77	한국경제 논설위원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曹炳喆	사회73-77	세계일보 논설위원	평화통일재단 고문
朴勝俊	중문74-78	조선일보 전문기자	인현대 초빙교수
許英燮	지리교육74-78	경향신문 주간국장	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
金玄浩	독문74-80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본부장
鄭興實	수의학75-81	MBC 기획조정실장	前춘천MBC 사장
金亨珉	외교76-80	SBS 논설위원	SBS 보도제작국장
李東官	정치76-81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趙在鐸	외교76-81	한국일보 논설위원	前한국일보 정치부장
李啓聖	정치77-81	한국일보 논설위원	한국일보 한반도평화연구소장
崔英勳	법학78-83	동아일보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金鎮國	정치78-85	중앙일보 정치부장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吳在錫	외교78-85	연합뉴스 논설위원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李容世	토목공학79-83	문화일보 편집국장	문화일보 논설위원
李先敏	국사80-84	조선일보 문화부장	조선일보 오피니언부장
金昌均	경제80-84	조선일보 논설위원	前조선일보 정치부장
李相起	서양사학81-87	한겨레신문 사람팀장	아시아기자협회 창립회장
鄭恩玲	인류85-89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前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蔡耕玉	경영86-90	매일경제 유통경제부 차장	매일경제 뉴스속보부장
許文明	가정관리86-90	동아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金永燮	원자핵공학87-95	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 차장	연합뉴스 기사심의위원

지령 400호
기념 대담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서울대인 생각 담아내

孫一根편집위원장·金哲洙논설위원

지난 1976년 4월에 창간한 동창회보가 이번 7월호 발간으로 지령 4백호를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지나온 35년을 되돌아보는 대담이 지난 6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모란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담은 본보 논설위원(초창기는 편집위원) 가운데 가장 오래 참여한 편집인인 孫一根(법학51-64)상임부회장과 모교 법학부 金哲洙(법학52-56) 명예교수를 모시고 許文明(가정관리 86-90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동창회보, 서울대 역사의 산 증인

사 회 : 이렇게 첫 호 동창회보를 직접 보니 옛날 신문이 주는 감격이랄까, 품격 같은 무게감이 다가옵니다. 또 회보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동창회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출판 작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金哲洙교수님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셨는데 감회가 새로우시죠.

金哲洙 : 초창기 동창회보는 1975년 각 단과대별로 흩어져 있던 서울대학교가 종합화가 돼서 관악으로 옮긴 후 이듬해에 창간됐어요. ‘이제 학교가 종합화가 됐으니까 단과대별로 흩어진 동창회도 모으자’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래서 동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동창회보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당시 상임부회장이셨던 李錫範(경성법전32졸) 동문과 학생처장이자 동창회 초대 사무처장이셨던 徐燮珪(법학46졸) 동문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 회 : 지금 법인화가 이슈인 것처럼 그 당시는 ‘종합화 이루기’가 과제였군요. 동창회보가 서울대 역사의 변화 속에 산 증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관악산에 등지를 틀게 됐나요? 데모를 많이 해서 시 외곽으로 보냈다는 게 맞습니까? (웃음)

金哲洙 : 예, 독재정권에서 학생들이 하도 시위를 하니까 정부에서 서울대를 멀리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朴正熙대통령 측근이 미국 코넬대 출신이었는데 그 대학이 산중턱에 있어 좋았으니 서울대도 산으로 보내자고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당시 관악산에 주요 인사들이 애용하는 골프장이 있었는데, 포장도 안 된 동네에 좋은 차가 한 열대쯤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반감이 들어서 차에 돌을 던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학생들이나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朴正熙대통령이 화가 나서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니 관악산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孫一根 : 尹天柱총장 시절에 도쿄대 하야시 겐타로(林健太郎)총장이 관악캠퍼스를 둘러보고 第一聲이 부럽다고 할 정도였으니 어찌보면 큰 은혜를 입은 셈이지요.

사 회 : 재미있는 에피소드네요. 孫一根 상임부회장님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회보를 제작하고 계신데요.

孫一根 : 제가 1992년 편집위원으로 동창회보 제작에 참여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때가 세대교체기였던 거 같아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은 저보다 선배되신 분이 그만 두고 그 대신에 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상임부회장이 돼서 당연직인 편집위원장과 편집인을 겸하고 있죠.

회보는 16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32면이니깐 꼭 두 곱절이에요. 중간에 재정난으로 지면 축소, 휴간을 하는 등 잠시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맡은 뒤에는 무리가 되더라도 전면을 컬러로 해서 독자들에게 시원한 지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간 부수가 4천부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포함해서 통칭 20만부를 발행하고 있죠.

사 회 : 언론매체네요. 더군다나 보는 분들이 다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孫一根 : 회보가 월간이니깐 정보의 속보성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 나름대로 지면 구성과 편집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직선적인 교통수단이라면 버스는 기차에 비해서 좀 곡선적입니다. 지금 동창회보는 기차역보다 훨씬 가

또 동문들 입장에서는 회비를 총동창회와 단과대동창회 양쪽에 내야하니 총동창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다. 그래서 동문들이 처음에는 회비도 잘 안 냈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가 상임부회장님 말씀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 기운이 돌면서 나아지게 된 겁니다.

사 회 :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창회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제언이 있으신가요?

孫一根 : 제가 편집위원장을 맡으면서 달라진 게 특수 용지를 쓰고 전면을 컬러 인쇄한 것과 회보의 바라이어티입니다. 구체적으로 관악시단, 콧트 릴레이 등 다양한 코너를 신설했죠. 최근에는 인터넷 회보의 활성화와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건강관리 강좌 코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동창회나 회보 제작에 가능한 한 여성과 젊은 세대를 많이 참여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휴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장학빌딩 건립·폐교 반대·개교 원년 찾기 등에 기여

회보에 여성 및 젊은 동문 참여 적극 유도

까워서 바로 집 앞에서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는 버스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보의 커뮤니케이션의 회로가 곡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 회 : 서울대라는 간판이 있지만 충분히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최근 동창회보는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콘셉트의 변화가 있었는지요.

孫一根 : 회보는 무엇보다 재미있고 필요한 정보가 있고, 기다려지는 회보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해보니 서울대 폐지론이 나왔을 때 단과대 중심이었던 동문들이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많이 결집이 됐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동문들 스스로 우리가 단과대별로만 뭉쳐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을 갖게 된 거죠. 우선 표상적으로 동창회비가 많이 모이고 그게 계기가 돼서 동창회보가 각계 동문들의 메시지와 여론을 담는 중심 매체가 됐죠.

金哲洙 : 처음에는 회보가 일종의 엘리트 신문으로 출발해 계몽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각 단과대학동창회장들이 왜 총동창회를 만드느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설기사를 내면 어떻게 생각해봅니다.

孫一根 : 회보가 특수지로서 여론향도나 캠페인의 큰 성과를 거둔 게 많습니다. 우리 林光洙회장님의 선도적 역할이 지대했지만 서울대 폐지론 반대 주장이 많은 효과를 봤고, 개교 원년 찾기 캠페인을 통해서도 서울대학교 개학 연도를 1895년으로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회보를 우리 동문들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많이 열독해 캠페인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金哲洙 : 총동창회가 현재 잘 되는 이유는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많은 행사가 열리고 회보가 이를 성실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홍보하면 많은 동문들이 모여요. 그렇게 되면 동문들이 회비도 잘 냅니다. 이렇게 회비를 모아서 장학금을 조성하는 데도 아주 큰 공헌을 했죠. 또 장학빌딩을 새로 건립할 때도 3백억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초과 달성했어요.

국제화 대비 영문판 발행할수도

孫一根 : 처음에 장학빌딩 건립모금을 시작하는데 큰 건물을 짓기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서 다들 그 금액이 모아질까 염려했습니다. 무엇보다 林光洙회장님이 맨 먼저 써든 50억원을 쾌척하셨기 때문에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회보에 모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또 회회장님이 큰 금액을 기부하신 이야기가 소개되니까 申明珪(생물교육48-54)여사가 15억원을 출연하셨어요. 그분이 점화자가 된 셈이지요. 그 이후로는 너도나도 기부에 동참하고, 목표 금액을 초과달성했죠. 이 자리를 빌려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논설위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협력에 고맙다는 말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金哲洙 : 법인화도 동창회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반대하는 재학생들에게 의견도 보냈지만, 그것보다 국회에 가서 법안이 통과 되도록 많은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당 위원이 반대한 법안이었는데 마지막에 동창회 임원들이 부탁을 해서 극적으로 통과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 회 : 미주동창회보가 있지만 총동창회보 안에 국제화 코너를 신설하는 건 어떨까요.

孫一根 : 세계대학평가 순위 점수를 매길 때도 외국인 학생 비율도 하나의 요건이에요. 서울대도 점점 외국인 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난번 베트남 출신 서울대 동문들이 현지에서 동창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동문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회보에 영자 지면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독자들 중에 동창회보에 기념촬영 사진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문들간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주고 만남의 장을 마련하다 보니 각 지부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념사진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신문을 보게 되죠. 이번 기회에 그런 고민이 있다는 점을 고백하면서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사 회 :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두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더 열의를 갖고 동창회보 만드는 일에 임하겠습니다. (정리=邊榮顯기자)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 온누리에 널리 알려

지령 400호
축하 메시지

“33만 동문의 소통 역할 수행에 감사”



李世中(행정53-57)변호사

먼저 지령 4백호를 맞이한 동창회보에 축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 동문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 도처에서 각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창회보는 사회 각계에 흠어져 있는 33만 동문들에게 일체감을 심어주고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 하였습니다.

모교의 변화하는 발전상과 동창회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애착을 고취시켜주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기사를 게재하여 동문들이 항상 기다리는 회보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창회보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한 논설위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향할 미래의 방향 제시”



朴慶姬(식품영양73-77)KBS 아나운서

매월 10만부를 발간하는 동창회보가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만큼 앞으로도 모교와 사랑하는 선배배들을 돕는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또 국제적 안목과 역사적인 시각에 입각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동문, 후배들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서울대인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보를 애독하시는 동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대인 하나로 묶는 소중한 자산”



李奉柱(사회복지81-85)모교 대학신문 주간

동창회보는 지난 35년 동안 소통과 정보의 장을 통해 전세계 서울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온 우리 서울대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매월 동창회보를 받아보며 서울대 구성원의 하나라는 자긍심을 확인합니다. 또 그러한 자긍심은 자랑스러운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앞으로도 동창회보가 동문들 간의 결속력을 더욱 다지고 동창회와 모교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창회보 통해 선배 도움 받았어요”



姜聲泰(기계항공01-09)공신닷컴 대표

서울대 동창회보 4백호 창간 특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동창회보에 큰 빛을 진 사람입니다. 재학생 시절 ‘공신’이라는 교육봉사 동아리를 만들었죠.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내용을 학습법, 동기 부여 콘텐츠로 만들어 공신닷컴(www.gongsin.com)이라는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었죠. 덕분에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법 콘텐츠가 부족하던 그 시절 접속자들이 폭주했었고 엄청난 트래픽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때 마침 동창회보가 저를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동창회보를 보신 한 선배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CDN(콘텐츠 전송 서비스)업체에 근무하시던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 저희 사이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지금 대학생 동아리를 넘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동문들이 보여준 자신감과 애교심을 모교 발전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데 ‘서울대동창회보’가 선도적으로 이바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4백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金泰希(의류99-05)텔런트



“동창회보는 바빠서 자세히 정독하지는 못하지만 회보에 등장하는 쟁쟁한 선배님들을 발견할 때마다 후배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동창회보 파이팅!” - 李하늬(국악02-06)미스코리아·방송인



(계재순서는 입학년도순)
“발써 창간 35년이 넘어섰군요. 그동안 서울대 동문 가족들이 친목과 유대를 나누고 모교 발전을 위해 뜻을 나누는데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온 동창회보 4백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申榮均(치의학48-55)신영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동창회보 4백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동창회보 역시 기쁘고 재미난 이야기들로서 모든 동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서울대인의 소셜미디어’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朴孟浩(불문52-57)민음사 회장



“지령 4백호에, 매월 10만부를 발행한다니 놀랍군요. 양적인 면에서는 큰 발전을 이뤘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정제돼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을 좀더 배려해 주시고, 음지에서 봉사하는 동문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세요.” - 李順載(철학54-58)텔런트



“동창회보는 33만 동문을 결집시키고 화목을 도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대인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정보를 주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좋은 협조자가 되는 서울대동창회보로 더 한층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 黃秉冀(법학55-59)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동창회보는 동문과 동문, 동문과 모교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벽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같이 여러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沈羊弘(국문64-71)텔런트



“요즘 반값 등록금이 화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선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창회의 가장 큰 역할은 후배들을 돕는 일 아닐까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돕는 일에 동창회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 趙英男(성악64입)가수



“동창회보가 서울대 동문을 뛰어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가 가야 할 바를 제시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4백호를 맞이하면서 더 넓고 높은 시각으로 동문들과 국민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국민 화합과 통합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姜智遠(정치68-72)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대표



“서울대동창회보 4백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와 K-POP의 열풍처럼 전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약하는 동문들의 소식들을 전해주시기 바라며, 모교와 동문을 이어주는 동창회보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李秀滿(농공학71-78)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한국 사회를 넘어 세계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동문들에게 힘이 되면서도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李容秀(체육교육77-81)세종대 교수



“매월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의 소식과 학교의 동정으로 가득한 동창회보를 읽을 때면 자랑스럽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동창회보가 더욱 발전해 보다 많은 동문들이 더 큰 애교심과 자부심을 키워가는 매개체로서 언제나 함께 하길 바랍니다.” - 金長實(행대원79-81)예술의 전당 사장



“서울대인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주는 동창회보 4백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문과 모교의 가교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 安哲秀(의학80-86)모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매월 발송되는 동창회보는 서울대 동문으로서의 소속감을 안겨줍니다. 앞으로도 서울대 동문의 긍지와 단결을 두텁게 하는 동창회보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4백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서울대 동문의 위상과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수고해주시지요.” - 락스미 나까르미(대학원80-82)새턴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동창회보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군요. 미처 몰랐습니다. 동문과 모교의 가교 역할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헌하는 회보가 되길 바랍니다. 4백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李尙默(해양81-85)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정기적인 회보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빠르고 상세하게 동문들의 동정을 살피고, 단결과 화합의 바탕을 마련해준 동창회보 4백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좋은 소식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희망합니다!” - 羅卿瓊(사법82-86)국회의원



“서울대인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정보를 주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좋은 협조자가 되는 ‘서울대동창회보’로 한층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 張亨碩(디자인학부99-03)영화감독



미주동창회 金殷宗회장 체제 출범

林光洙회장 격려사 <요지>

미주동창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임원과 미주 동문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창회장직을 맡으면서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두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당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장학빌딩은 최첨단 현대식 건물로서 서울대인의 긍지와 위상에 걸맞게 지었으며,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여 모교와 동문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교의 뿌리를 찾기 위한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도 지난해 10월 7일 모교의 최종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서 “서울대는 종합대학으로 1946년 통합해서 개교했지만, 학문 분야에 따라 대학교육의 연원이 1895년에 시작됐으므로 1895년을 개학 연도로 한다”는 안건이 의결됐고, 모교 총장이 10월 14일 개교기념식에서 이를 선포함으로써 우리 서울대는 세계 명문대학에 손색이 없는 1백16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모교는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되고 명년 초부터 시행하게 되는 국립 서울대학교 법인화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교가 자율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한 법안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려면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도 모교와 동창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주동창회 제11대 金殷宗회장 인터뷰

“타대학동창회 리딩 브랜드 역할 수행”

지난 7월 1일부터 미주동창회를 이끌고 있는 金殷宗(경제59-63 뉴프라이드그룹 회장)회장으로부터 소감 및 사업계획 등을 들어봤다.

－ 취임하신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있었기에 오늘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제11대 회장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주 전역에 있는 26개 지부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모든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사불란하게 동창회를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첫째, 법인화가 모교를 세계 우수 대학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변혁이기 때문에 법인화를 달성하기 위한 모교의 노력에 가능한 모든 힘을 더할 계획입니다.

둘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모금에 모든 동창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미주 동창회원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즉각적인 기부는 어렵더라도 유종의 방식으로 유산을 기부하도록 유도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발전기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셋째, 제20차 평의원회의에서 결의한 Brain Network의 강화방안으로 경제, 정치 등의 인문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계통의 동문 석학들을 초빙해서 폭 넓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미주동창회관 건립을 조심스럽게 LA 중심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0대에 걸친 전임 회장단들이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미주동창회가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타대학 동창회의 리딩 브랜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智)



지난 6월 11일 열린 제20차 평의원회의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모교 법인화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

미주동창회 집행부 및 동창회보 발행권이 7월 1일자로 시카고에서 LA로 이관됐다. 본회 林光洙회장, 尹勤煥·孔大植부회장 등이 미주동창회 초청을 받아 지난 6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LA를 방문해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미주지역 동문들을 격려했다.

6월 11일에 열린 제20차 평의원회의에서는 신임 金殷宗회장을 비롯한 제11대 집행부가 구성을 마치고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제12대 차기 회장에는 위싱턴DC동창회 吳仁煥(전문기상63-67)동문이 선출됐다.

순방단 환영 전야제서

남가주 합창단 특별공연

미주동창회는 지난 6월 10일 LA 퍼시픽 팜스리조트에서 본회 순방단과 각 지부 평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원 및 순방단 환영 전야제를 개최했다.

宋舜英회장은 환영사에서 “2년 전 회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면서 과연 미주동창회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걱정이 많았다”며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봉사해준 임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많은 동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제10대 미주동창회 핵심사업인 ‘Brain Network’와 관련해 “동문의 두뇌자원을 조직화해 한국의 선진화와 모교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6일 LA에서 Brain Network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가진 동문 교수 11명을 한자리에 모시고 ‘한반도의 장래 -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이라는 주제로 학술



宋舜英회장(左)이 11대 金殷宗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전달했다.

강의와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 각 지역에서 모인 26개 지부동창회 회장 및 평의원들이 동창회 현황과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소개했다. 2009년에 결성된 이래 처음으로 평의원회의에 참석했다는 알래스카지부 동창회 尹梯重(축산55-62)회장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른 지부의 소식을 들으니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 宋舜英회장은 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金殷宗(경제59-63)회장, 崔舜鎔(수학61-65)·丁浩(조선항공62-66)·金虎範(경영69-73)특별간사, 朴泳圭(농경제57-61)·金載榮(축산62-66)감사, 시카고지부 동창회 林利涉(응용미술55-59)부회장, 남가주지부동창회 합창단 金炳淵(응용수학72졸)이사장, 미주동창회보 趙敏奎(정치50입)·趙鳳琬(법학53입)·金日勳(의학51-57)·曹大鉉(화학공학57-61)편집위원, 이기준 편집주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특별순서로 제6회 남가주지부동창회 합창단 공연이 디즈니홀에서 열려 많은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맹연습에 돌입했다는 합창단원들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모란이 피기까지는’, ‘You raise me up’, ‘Italian street song’ 등을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합창단 金炳淵이사장은 “음악을 통해 평범한 일상생활에 빛깔과 향기를 얹어 행복을 창출해 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며 “평의원회의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오신 여러 동문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제20차 평의원회의 개최

차기 吳仁煥회장 선출



제12대 吳仁煥회장

미주동창회는 전야제 다음날인 11일 LA 퍼시픽 팜스리조트 Majestic C/D Room에서 본회 및 각 지부동창회 평의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평의원회의를 개최해 Brain Network 존속 여부, 평의원 배정 재조정, 12대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격려사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각 지부동창회의 결속력을 다지고 모교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결성된 미주동창회는 그동안 동문들을 폭 넓게 규합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오며 미주 동문들의 단합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의



1만여 미주동문 하나돼 화합 다져

☑ 화합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친목과 단합을 이뤄나가는 데 앞장서서 수고해주시길 金殷宗회장님과 제11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란 나와 우리 모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일일 것"이라며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두 가지 역점사업으로 장학빌딩 건립과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추진했는데 최근 두 사업 모두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됐음을 보고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고 전했다. <10면 격려사 요지 참조>

이어 李勝子총무국장과 朴淑재 재무국장이 각각 사업보고와 재무보고를 했으며, 高秉喆집행위원장이 Brain Network사업보고 및 동창회보 발간보고를 했다.

특히 지난 5월 30일 '서울대 법인화 철폐'를 요구하며 일부 학생들이 총장실을 비롯해 대학본부인 행정관 건물 전체를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미주동창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토론에서 林光洙회장은 법인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모교의 법인화는 논의를 시작하지 23년 만에 어렵게 결실을 본 숙원사업으로 우리 서울대가 세계 일류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동창회는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성명서 발표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속히 변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며, 법인화야말로 우리가 글로벌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서 모든 미주 동문들이 지지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Brain Network 존속에 관해서는 신임 회장단에게 일임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미주 의과대학동창회처럼 미국 내 단과대학동창회가 있으면 그 단과대학동창회의 회장은 자동으로 평의원이 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제12대 회장이 될 차기 회장 선거에는 워싱턴DC지부동창회 吳仁煥동문이 단독 출마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신임 감사에 남가주 지부동창회 金載榮(축산62-66)동문과 워싱턴DC지부동창회 朴平一(농경제69-76)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이 具璟會동문(右)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모교 李明哲발전기금 부이사장이 高秉喆동문(左)에게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여했다.



宋舜英회장이 朴泳圭감사(左)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워싱턴DC지부동창회 제25대 회장과 한미장학재단 워싱턴지부 회장을 역임한 吳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중책을 맡게 돼 기쁘고 아이비리그동창회를 벤치마킹해 사회에도 기여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집행부 임원으로 成周慶(무역68-72)사무총장, 白玉子(국악71-75)총무국장, 강호석(경영81-94)재무국장, 李京熙(독문83-87)사업국장과 미주동창회보 임원으로 池仁洙(상학59-65)편집위원장을 선임한 金殷宗회장은 宋舜英회장으로부터 동창회기를 인계 받고 본격적으로 金殷宗체제가 출범했음을 선포했다.

신임 成周慶사무총장은 제11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계획안을 발표하며 "기존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계승·보완해 이용자들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Brain Network 사업 승계 및 각 지부간 결속을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원회의가 끝난 뒤 오후 6시 퍼시픽 팜스리조트 Pavilion tent에서 평의원과 그 가족 1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및 모교 방문단 환영 만찬회를 개최했다.

金殷宗회장은 환영사에서 "영원한 서울대인이라면 좀더 높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인류의 삶과 질을 높이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됐으면 한다"는 말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만찬회서 공로패 수여 林光洙회장 격려금 전달

본회 林光洙회장은 만찬사에서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宋舜英회장님을 비롯한 제10대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金殷宗회장님과 제11대 집행부도 더욱 훌륭한 동창회가 되도록 진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모교가 세계 일류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모교 吳然天총장은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 "모교의 법인화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서울대가 한 단계 격상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새로운 여건 속에서 동문들이 보내주는 지지와 격려는 모교가 발전하는데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모교 발전기금 李明哲부이사장은 참석자들에게 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하며 "서울대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세계 선도적인 연구자들과 창의적인 융합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나라 최초의 학문분야 노벨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뒤에 올 사람을 생각하며 앞서가는 동문 여러분이 길을 개척하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서울대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成周慶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은 뉴욕지부동창회 姜忠武(국어교육60-65)회장, 하트랜드지부동창회 裴圭永(사회교육68-75)회장, 시카고지부동창회 李泳玟(식물학66-70)회장, 관악후원회 具璟會(의학59-65)회장, 미주동창회 金正周(식물학60-64)前사무총장·李勝子(영어교육60-64)



뉴욕지부동창회 金昌洙·韓京秀·李俊行동문, 姜忠武동문 부부

뉴욕지부서 장학기금 보내와 李俊行부회장도 20만불 출연

뉴욕지부동창회(회장 姜忠武)는 지난 6월 16일 74명의 동문이 출연한 장학빌딩 건립기금 7천4백 달러를 본회에 보내왔다.

지난해 1차 모금에 1백31명이 참여한데 이어 이번 2차 모금까지 총 2백5명의 동문이 장학빌딩 건립기금 마련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姜忠武회장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동문이 참여해주셔서 기쁘다"며 "우리 동창회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미국 LA에서 열린 제20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 본회 李俊行(섬유공학48-54 뉴욕지부동창회 골든클럽 회장)부회장이 林光洙회장에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약정한 2억원 중 잔여액 2만 달러를 전달했다.

李俊行부회장은 "동창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대인에 대한 자부심과 모교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며 "후배들의 학업 정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前총무국장·朴淑(의학64-70)前재무국장, 클레어몬트 매케나칼리지 李塚珍(정치55-59)석좌교수, 로체스터대 張鏞成(경제85-89)교수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 모교 吳然天총장을 대신해 李明哲부이사장이 컬럼비아대 金必立(물리86-90 영광부문)교수, 일리노이대 高秉喆(법학59졸 참여부문)명예교수, 시카고한인회 張基南(사학62입 사회기여부문)회장에게 '자랑스러운 미주동문상'을 수여했다.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은 宋舜英회장에게 격려금 3천 달러를 전달했으며, 宋舜英회장은 "앞으로 2년간 미주동창회를 이끌어갈 金殷宗회장에게 이 격려금을 드린다"고 말했다.

미주동창회는 행사 마지막 날인 6월 12일 퍼시픽 팜스리조트 Peb-

ble Beach Room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골프대회 성황

이날 강연회에서 陳稔(경제59-63)前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희망 한국 새로운 10년을 연다'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아주대 朴在濶(경제59-63)前총장이 '교육 개혁을 통한 한국의 선진화 기반 자립'이란 제목으로 열띤 강연을 했다.

한편 퍼시픽 팜스리조트 내에 위치한 Eisenhower Course에서 남가주지부동창회 주최로 평의원 환영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金明信(치의학84-88)동문과 車奇政(제약계측85-89)동문의 부인이 각각 남녀 챔피언의 영예를 안았다. <智>



6월 12일 남가주지부동창회 주최로 평의원 환영 골프대회가 열렸다.



본회 제156차 긴급 상임이사회

재학생에 보내는 호소문 결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6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제15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모교 재학생들의 대학 본부 점거 농성과 관련해 호소문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徐廷和·朴熙伯·洪性大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단과대학동창회장, 관악회 이사, 본보 논설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대 법인화는 논의를 시작한지

23년 만에 어렵게 결실을 본 모교가 세계 일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숙원사업”이라며 “모교 총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슬기롭게 헤쳐가리라 생각하지만 모교 발전을 위한 선배 동문들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사랑하는 서울대 후배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호소문 참조〉

본회는 지난 6월 10일 모교 행정관을 방문해 李智倫총학생회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회장단, 모교 방문해 학생 설득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 10여 명이 지난 6월 22일 모교 행정관에서 점거 농성 중인 재학생들을 방문해 “조속히 점거농성을 풀고 대학 당국과의 대화로 해결하고 하루빨리 학업에 돌아가 달라”고 설득했다.

또 회장단은 농성장 방문에 앞서 대외협력본부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수행중인 吳然天총장, 朴明珍·李昇鍾부총장 등을 만나 법인화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학생들에게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득해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崔斗衡·金宗鎬·孔大植·鄭潤煥·姜寅求·卞柱仙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본회 회장단이 모교 재학생을 방문한지 사흘만인 지난 6월 26일 모교 총학생회는 행정관 점거 농성을 풀었다.

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吳應準(약학58-62 웰텍코리아 회장)회장을 비롯해 임철중치과의원 任徹中(치의학61-67)원장, 한국연구재단 吳世正(물리71-75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이사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鄭 革(원예74-78)원장, 대전시 秋淵坤(외교74-78)국제관계자문대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李載求(경제76-80)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기관장 모임 冠研會 창립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6월 13일 대전시내 한정식당 송원에서 대덕연구단지 내 기관장의 모임인 ‘冠研會’를 창립하고 첫 모임을 가졌다.

창립 기념 총회에서 관연회 회장으로 梁明承(금속공학69-73)前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추

〈호소문〉 사랑하는 모교 후배들에게

후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과 젊은 패기 그리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며 본부를 점거한 장기 농성 사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 희망과 기대를 무너뜨리는 듯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는 법인화 논의를 시작한지 23년 만에 어렵게 결실을 본 우리 서울대의 세계 일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

한 숙원 사업입니다.

여러분은 서울대의 법인화라는 변화의 시기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교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교 당국과 보다 긴 호흡으로 대화할 때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의 와해 등의 걱정에 대해 과연 어쩌서 무엇이 그런지 잘 따져보고, 만일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尹斗植作



‘히말라야를 넘은 아네하’, 59×59cm, 종이, 암채, 금박, 은박, 여박, 2011

〈작가약력〉

▲1953~1957 모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 응용미술학 박사
▲일본동경예술대학 일본미술사 연구원

▲前인천가톨릭대 종교미술학과 교수
▲개인전 3회
▲미국단체전 및 해외교류전
▲갤러리 정 개관 기념전
▲교회전
▲現문화공간 정원 대표·화가

의대동창회

朴容晔회장 메달리스트 올라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지난 6월 19일 인천그랜드CC에서 1백10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9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결과 姜信浩고문이 시니어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朴容晔회장과 李吉女고문이 각각 시니어부와 여성부에서 메달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일반부 우승은 金振珮(의학83-89)동문, 여성부에서는 黃熹英(의학82-88)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최대 참가상은 16명이 출전한 44회 동기회가 수상했으며 朴紀好

(의학81-87)동문 가족은 4명이 참가해 영화티켓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朴薰泳(의학71-79)·金東運(의학80-86)·嚴載皓(의학80-86)동문 등에게도 감사 선물을 전했다. 최대 참가지회상은 9명이 참석한 인천길병원지회에 돌아갔다.

그밖에 李鍾九(의학51-57)·朴善玉(의학80졸)·金容範(의학84-90)동문이 장타상, 朱興在(의학57-61)·朴仁淑(의학67-73)·崔東浩(의학79-85)동문이 근접상을 받았다.

세계의 대학은 초입류를 향해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우리 서울대인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대 동문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1. 학생들은 조속히 점거 농성을 풀고 대학 당국과의 대화에 나서기를 호소합니다.

1. 대학 당국은 법인화에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학생들에게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내용을 빨리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1. 6.

서울대학교동창회 회장단
및 상임이사 일동

식품영양학과동창회

모교서 첫 특별강연회

식품영양학과동창회(회장 朴英姬)는 지난 5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생활과학대학에서 수원대 任曠淑(식품영양80졸)교수를 초빙해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崔明珍회장, 모교 생활과학대 權薰貞학장, 李基榮·黃仁京·余禎星교수를 비롯해 전주에서 올라온 동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알아두면 신나게 행복하게, 잡나 체하며 사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 이야기’란 제목의 특강을 들은 후 미술관에서 ‘근대 일본이 본 서양’ 전시회를 관람했다.

朴英姬회장은 “가정관리학과와 의류학과 동창회가 지난해 특강 모임을 개최한 후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늦게나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해가 지날수록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문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崔明珍회장, 黃仁京·尹芝賢교수, 鄭貴和·南基善·趙福姬동문 등이 경품을 협찬했다.

영문학과동창회

래리 서머스 前의장 특강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柳津)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미국 래리 서머스 前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초청해 제3회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柳津회장, 모교 白樂晴경제교수, 尹永寬교수, 李洪九 前국무총리를 비롯해 8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지난 1회 강연회는 폴린 파월 前장관, 2회는 쥘부시 前플로리다 주지사를 초청한 바 있다. 〈南〉



치대·대학원동창회

홈페이지 개설·단체보험 가입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秉燦)는 지난 6월 21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 교수회 의실에서 池憲澤·白純之·洪禮杓고문을 비롯해 30여 명의 이사와 평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상임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사업을 돌아보고 동창회가 당면한 현안들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개원의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상표권 사용료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金龍浩부회장은 “공문에 보면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 치대원 출신은 명시하지 않았고, 건물 간판인지, 옥외물인지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며 “이는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미미한 상태에서 상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해 필요하다면 의대·약대·수의대동창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본부와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관악캠퍼스 치과병원 분원설치와 관련해 모교와 관악구 치과의사회간의 오해와 갈등을 중재하는 채널로 동창회가 나서 불필요한 소모적 마찰을 줄이도록 노력할 뜻을 밝혔다.

한편 동창회는 단체상해보험 서비스 사업을 기획해 동문들의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회비(10만원)를 납부하는 동문은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동문간 소통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snudc.com)를 개설했다.

金秉燦회장은 “그동안 소통과 결집이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6천여 명의 동문들이 세대를 넘어 거리낌없이 대화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게 됐다”며 홈페이지에 많은 동문들이 방문해줄 것을 부탁했다.

자선골프대회 개최

동창회는 지난 6월 16일 용인한화플라자CC에서 자선친목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姜忠求(치의학84-90) 동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林鍾昊(치의학82-88)동문이 2위에 올랐다.

여성조 우승은 韓金男(치의학83-89)동문이며, 단체전은 2백45타 동점으로 31회와 40회 동기회가 공동 우승했다.

이날 모아진 성금은 스마일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관악회 여기자모임

부회장 선출...명부 제작 예정

관악언론인회 여기자모임(회장 申然琇)는 지난 6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30여 명의 동문 여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관악언론인회 裴仁俊회장, 金亨珉간사장, 崔英勳부간사장, 모교 吳然天총장, 朴明珍부총장 등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했다.

申然琇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와 내년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변함 없이 선후배를

아끼고 믿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관악언론인회 창립부터 동문 언론인 모임에 애정을 갖고 함께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여기자 모임을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악언론인회 裴仁俊회장은 “2년 내에 여기자 중에서 서울대 언론인 대상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동창회보에 여성 기자들의 칼럼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에 조선일보 경제부 姜京希(외교84-88)차장, 매일경제신문 蔡耕玉(경영86-90)뉴스속보부장, 동아일보 국제부 許文明(가정관리86-90)차장, 중앙일보 JTBC 보도본부 愼藝莉(영문87-91)위원, SBS 국제부 洪智英(불문89-93)차장 등 5명을 선출하고, 중앙일보 사회부 李佳穎(신문91-96)기자 등 각 언론사 증권 여기자를 간사에 선임했다.

공식 행사 후 덕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모교 朴明珍부총장은 모교 朴枝香(서양사학71-75)도서관장, 金成燾(회화82-86)관악사사감, 尹芝賢(식품영양88-93)호암교수회관장 등 과외 여성 3인방을 소개하며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두각을 나타낼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여기자모임은 조만간 명부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모교 吳然天총장 초청을 받아 오는 11월 14일 총장공관에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본회 林光洙회장이 필함을 선물했으며, 洪性大부회장이 탁상시계를 협찬했다.

AIC동창회

金文洙경기도지사 특강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지난 6월 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金文洙(경영70-94)경기도지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행정대학원 金秉燦원장, 朴相仁주임교수를 비롯해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李世漢회장은 “회원 수가 1천3백여 명을 넘어서며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방송 관련 단체로 성장하게 됐다”며 “이러한 모임을 통해 정보 교류도 활발해져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金文洙도지사는 ‘통일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강연에 앞서 경기도의 온라인 행정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동승클럽

李世瀾동문 포럼 특강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6월 10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에서 34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제2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世瀾(언어65-73)동문이 연사로 초빙돼 ‘불교 우주 탐사’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金容泰총무는 “형이상학 주제로 동문들의 ‘죽음에 대한 각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청강 후기를 남겼다. (南)



SPARC동창회

다일공동체와 ‘밥퍼’ 봉사 활동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河相哲)는 지난 6월 28일 서울 청량리역에서 다일공동체와 함께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역 주변 노숙자 등 불우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번 나눔 행사는 평소 봉사활동을 생활화 해온 李秀元(15기)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밖에 동창회는 지난 한달 동안 관악산 등반대회, 세미나 등을 통해 모이며 친목을 도모했다. 6월 14일 모교 자연대 501동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모교 吳鍾南교수와 金修奉교수의 ‘초기 우주로의 여행’, ‘세계 속의 한국’ 등의 강연을 들었다.

5백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SPARC동창회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 골프대회를 열고 있으며 송년회, 정기총회 등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다.

최근 오픈한 홈페이지(www.snusparc.com)는 ‘긴급업무협조’, ‘동문기업정보’ 등 동문들에게 꼭 필요한 메뉴로 채우고 관리도 철저히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CPMP동창회

6회 관악음악회 열어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徐綜郁)는 지난 6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8기 동기회(회장 김상수) 주관으로 제6회 관악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李鉉秀주임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金興洙원장, 張光根국회의원을 비

롯해 2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했다.

성인가요 전문채널인 아이넷TV의 ‘스타 쇼쇼쇼’ 공개콘서트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범룡, 김종환, 장윤정 씨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했다.

특별과정동창회 중에서 유일하게 야외음악회 행사를 열고 있는 ACPMP동창회는 현재 7기까지 4백여 명의 회원이 배출돼 매월 건축관련 세미나와 골프모임을 열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경대원동창회 李哲雨회장
(롯데백화점 사장)

롯데백화점 李哲雨(농경제61-65·경대원69-70)사장이 지난 5월 경영대학원동창회 제12대 회장에 선출됐다. 경대원동창회는 초기 경영대학원 출신부터 일반대학원 경영학전공, 경영전문대학원(MBA) 출신까지 아우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느슨했다. ‘기업 경영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李회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6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기업 경영의 매뉴얼을 적용해 “우리나라 최고의 동창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동문들 기대가 큰데.

“崔 燾학

장님을 비롯

해 많은 동문

들이 이구동

성으로 ‘좋은 동창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우리 동창회가 경영대학원, 경영연구자과정, 일반대학원 경영학전공, MBA 출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하나로 모으는데 애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문 대부분이 경영학을 바탕으로 서로 비슷한 울타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도 많으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로 구성된 조직인 만큼 동창회도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활성화 방안이라면.

“기업을 경영하면서 ‘365법칙’

을 도출해 냈어요. 3개월 간 면밀히 파악하고 6개월 동안 5년의 경영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동창회 성격이 일반 기업과 다른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계획을 짜는 것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창회, 지속성장 가능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나 실무진들과 논의 중입니다. 하반기 안에는 동창회 비전과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려고요. 구체적으로 8월 안에 이사회,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정관을 새롭게 고치



“지속성장 가능한 동창회 만들겠다”

려고 합니다. 12월까지 새 명부도 만들 계획이고요. 그 안에 특강, 송년회 등 두 차례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 회사 일도 바쁘실텐데.

“바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더군요. 물론 저 혼자 할 수는 없죠. 사무국 일꾼을 7명으로 늘렸습니다. 연령대도 상임부회장은 60대 전후, 사무국장은 45세 전후, 차장은 40대 초반으로 기용해 전 동문을 아우르도록 고려했습니다.”

－ 기금 모금 목표가 있으신지.

“얼마를 모으겠다고 수치로 말

하기는 어렵고요. 모이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기금도 두 배, 세 배로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법인화 이후 모교가 발전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재학생 후배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3년 서울 출생인 李회장은 중앙고를 나와 모교 농경제학대에 입학했다. ROTC 3기로 최전방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숄선수범의 리더십을 체득했다. 전역 후 경영대학원에 입학해 유통 마케팅을 공부했다. 한국마케팅연구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1976년 롯데쇼핑 창립멤버로 입사했다. 1998년 롯데리아 대표, 2003년 롯데마트 대표를 거쳐 현재 롯데백화점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백화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그는 2002년에는 한국마케팅 프런티어 대상과 서울대 AMP 경영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통, 섬김, 청렴, 현장중심 등을 강조하며 ‘열린 가슴으로 소통하라’,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공역), ‘명품 직원이 고객을 움직인다’(공역) 등을 저술했다. 향학열이 남달라 耳順의 나이에 아주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모교 인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성균관대 동양문화과정 등을 수료했다. 가족 가운데 누나(李芳雨 교육57졸), 형(李時雨 심리60입), 며느리(국가영 성악98-03)가 동문이다. (南)

화제의 동문

패션디자이너 沈 雪 花 동문

지난 4월 25일 중국 大連에서 열린 제2회 패션 아시아 어워드 프레타포르테(기성복 부문)에서 베리카 沈雪花(의류77-81) 대표가 대상을 받았다. 沈동문의 수상은 그동안 아시아 패션시장을 주름잡아온 일본과 중국의 유명 디자이너들을 제치고 받은 거라 더욱 의미가 크다.

국내 기성복 1세대 디자이너로서 ‘사라심’과 ‘피스비사라’라는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沈동문은 “아시아 중심시대에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나의 디자인 철학이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일할 때는 시간 가는 것조차 아깝다”는 沈동문을 지난 6월 28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멘토랄까, 롤모델이 될 만한 패션 디자이너가 마땅히 없었어요.”

모교를 졸업하면 디자이너보다는 ‘교수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던 그 시절, 沈동문도 다른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유학과 함께 교수를 꿈꿨다. 그러나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상 취업을 해야했던 그녀는 과감히 꿈을 접었다.

반도패션 공채 1기 디자이너

그 무렵 국내 굴지의 패션기업인 ‘반도패션’에서 디자이너를 최초로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전국에서 디자이너로 이름났다는 사람들이 1천여 명 정도 몰렸는데 단 4명만이 뽑혔고 그 중 한 명이 바로 沈동문이었다.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다는 얘기는 70년대 초반을 두고 한 말 같고, 77학번은 과외를 해서 들어간 1세대였어요. 가정대에 특히 잘사는 친구들이 많았죠. 비싼 부티크를 입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는데 저는 돈도 없었고, 그런 게 싫어서 제가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어요. 만들다보니 엄마와 언니 것도 만들게 됐고요. (웃음)”

시험 요강에 자기가 직접 만든 옷을 가져오라는 것이 있었는데 沈동문은 평소 만들어 입던 옷을 그대로 가져갔다. 작품용으로 만드는 옷과 실생활에서 입기 위해 만드는 옷은 그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과했지만 막상 입사해보니 의류학을 전공한 대졸자는 沈동문뿐이었다. 그만큼 회사의 기대는 컸고 입사하자마자 신규브랜드 개발이라는 중책을 맡겨졌다.

“명동에 나가면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요. 신기하기도 하고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퇴근 시간과 주말이 싫을 정도로 밤낮 없이, 정말 미친 듯이 일했지요. 개인적으로 그 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후 ‘코오롱’ 디자인실장으로 자리를 옮



“한쪽으로는 대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면서 디자인 기획을 팔아 디자인 연습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파리컬렉션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沈동문은 회고했다.

제2회 ‘패션 아시아 어워드’ 대상 영예 “글로벌 브랜드로 세계시장 공략할 것”

겨 소재개발을 맡았다. 沈동문이 직접 디자인하고 기획해 만든 투습·방수소재의 옷은 캐주얼업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며 1년 동안 1백억 매출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패션을 선도하는 글로벌 브랜드를 갖는 게 꿈이었던 沈동문은 안정적인 대기업 생활을 버리고 1990년 5월 디자인 기획사인 ‘베리카’를 창립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심설화베리카’와 ‘사라심’ 등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삼성물산, 코오롱, 국제상사 등에 디자인 기획을 제공했다.

이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CJ홈쇼핑의 후원을 받아 파리컬렉션에 참가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고, 서울컬렉션에도 참여해 자신만의 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05년은 ‘사라심’으로 명품을 디자인하던 그녀의 패션 인생에 전환점이 됐다. 롯데마트와 제휴해 자체상품인 ‘UL’을 개발하며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중저가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게 된 것이다. 沈동문으로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셈이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패션시장은 유럽중심의 명품이 주도했어요. 그러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가 교환되고 중국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께서 값싸고 품질도 좋은 상품을 찾기 시작했죠.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조, 유통까지 하는 ‘ZARA, H&M, UNIQLO’ 같은 제조 직매형 의류매장인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시장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에요.”

때마침 한류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沈동문은 주저 없이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SPA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2009년 8월 브랜드 ‘피스비사라’를 론칭해 현재까지 롯데백화점 잠실, 노원, 창원, 상인점에 입점한 상태다.

“SPA시장을 공부하다보니 제가 꿈꿔왔던 글로벌 브랜드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명품을 디자인해온 감성도 갖고 있지만 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판매, 유통까지 해봤으니 기본적으로 디자인만 아는 일반 디자이너와는 달라요. 품질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상품을 만들려면 상품기획자가 프로세스 전체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좀더 유리하죠.”

착한 가격의 명품 디자인 내보

그러나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SPA를 기업이 아닌 개인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국내에 진출해있는 해외유명 SPA브랜드와 경쟁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沈동문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시아의 ZARA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디자인과 트렌드를 리드하는 글로벌 브랜드, 새로운 패션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열정이 통했던 결과, 세계적인 SPA브랜드인 ZARA에서 ‘5년 안에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한국브랜드’로 ‘피스비사라’를 뽑았다. 沈동문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파리컬렉션에 참가할 때만 해도 내가 과연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어요. 유럽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도 많이 변해서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에서도 곧 나올 것 같아요. 세계 패션의 중심이 중국으로 바뀌고 있으니 까 중국시장에서 좀더 입지를 다져서, 우리나라 브랜드로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智)

“신진 연구자 과감히 지원해야 노벨상 수상자 나온다”

동문을 찾아서

吳世正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담 : 金永燮(연합뉴스 기사심의위원)논설위원

본보는 과학중심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모든 동문들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이공계 인사들을 중점적으로 인터뷰해 왔다. 지난 6개월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李周浩장관, 현대·기아자동차 李賢淳 前부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金道然위원장 등을 ‘동문을 찾아서’ 코너를 통해 소개했다.

4백호 특집인 이번 호에는 한국연구재단 吳世正(물리71-75)이사장을 만났다. 한

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를 아우르며 3조원 규모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거대 기관이다.

재단 출범 2주년을 맞아 대전 본부와 서울 청사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吳이사장을 6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뷰했다. 吳이사장은 시종일관 특유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실용성을 중시하는 과학자답게 회보가 원하는 ‘유익한 답안’으로 화답했다.

－ 서울대는 휴직 상태시죠.

“그렇죠. 2년까지 가능하고 특별한 경우에 3년까지 유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연구재단 (자연)환경이 서울대보다 좋은가요.

“서울대도 좋지만 연구재단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황토 산책길을 만들어 맨발로 걷기도 합니다. 황토의 좋은 기를 받는 기분이에요.”

－ 동창회보가 과학기술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林光洙동창회장님도 이공계 출신이시고요.(웃음)

“회장님이 아침 7시에 전화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인터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까지 챙기시냐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세요. 과학자 입장에서 참 고마운 일이지요.”

－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되셨어요.

“교수시절에는 연구재단이 관료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일에 연구비 집행가능성을 물어보면 대부분 안 된다는 답변이 와요. 부담하자마자 고객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죠. 슬로건도 ‘연구자가 감동하면 한국연구재단이 행복해집니다’라고 정했습니다. 朴贊謨(화학공학54-58)초대 이사장님 때부터 전화응대 등은 신경을 써서 많이 좋아졌고요.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 신경 쓰이는 게 심사의 투명성 문제예요. 경쟁률이 3대 1, 어떤 것은 10대 1이 넘어갑니다. 받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학자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떨어지면 본인의 성적보다는 심사가 이상하게 이뤄졌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자들이 투명한 심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대학입시의 경우 떨어지면 채점자를 원망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아직 채점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죠.”

－ HK(인문한국) 지원사업의 경우 그런 오해가 더 심하죠.

“탈락자 중에서는 본인보다 실력없는 평

• 吳위원장은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기도 졸업 후 1971년 모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1981년 美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美제록스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했다. 1984년 모교 자연대 물리전문학부 교수로 부임해 복합다체계물성연구센터 소장, 자연과학대학 학장, 전국자연과학대학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월 20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대외활동으로 20개가 넘는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의 객원 필진으로 참여했다. 한국물리학회, 한국전공학회, 한국방사선이용자협의회, American Physical

Society 등에서 주요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다.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총 1백70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 26명, 석사 60명을 배출했다. 서울대 복합다체계물성연구센터장 재임시에는 정보통신 전자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신소재·신물질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로 44세의 나이에 제6회 한국과학상(격년 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글 잘 쓰는 학자답게 저서도 많다. ‘스무살에 선택하는 학문의 길’, ‘대한민국 60년 : 성장과 전망－한국과학기술의 수준과 미래과제’, ‘과학이 나를 부른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등을 출간했다. 모교 총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만든 개인 홈페이지(www.sjoh.org)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연구비 지원 신뢰하도록 투명성 강화

‘성실실패 용인제’ 도입...연구풍토 개선

가자가 떨어뜨렸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 문제는 선진국의 연구지원기관에서도 겪는 일입니다. 신뢰할 만한 평가자를 충분히 모시기 어렵지요. 신경 쓰이는 부분이지요.”

－ 인문사회 분야를 지원하던 학술진흥재단과 과학관련 두 단체가 통합된 기관인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말씀해 주시죠.

“통합의 첫 번째 명분은 연구자들이 연구관리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행정직 직원들이 했죠. 지금은 PM(연구사업 관리전문가)이라고 해서 우수 과학자들이 와서 과제를 평가, 선정, 관리합니다. 두 번째 명분은 학제간 연구를 강조한다는 것이었죠. 융합이 중요해지면서 인문사회와 과학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자는 취지였어요.

PM제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학제간 융합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학문간 벽이 높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의미있는 융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

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나눠져 있을 때보다는 같은 울타리에 있다보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진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 인문·사회계의 불만이 쉬이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대 이사장부터 저까지 과학계 출신이 많다 보니 그런 불만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전체 예산대비 연구비도 15%정도 밖에 안 되고요. 인문사회 연구비 지원시 과학기술 분야의 틀을 쓰다 보니 안 맞는 구석도 있어요. 자연과학에 비해 기간도 길고 평가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 연구비 유용문제가 종종 보도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잘하고 계신데, 1%가 문제된다고 생각해요.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보니 규모가 작아도 크게 보도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합니다. 연구자들의 강한 윤리의식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원부처별로 연구비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보

니 잘 몰라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구비 지원 부처마다 1회 식비로 인정하는 금액도 달라요. 대학 연구실에선 주말에 나와 실험하고 토론하며 쓰는 비용이 회의비로 인정이 안 돼요. 행정부서에 주말 일정을 일일이 제출해야 회의비를 받을 수 있죠. 모르고 썼다가는 불법자로 몰리기 쉽죠. 지금은 국가위와 교과부가 교수들이 신경 쓰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연구자들이 모르고 실수하는 항목들에 대해선 매뉴얼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대학 자체에 연구비 전문관리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수들이 시시콜콜 다 알기 어렵거든요.”

－ 중점 사업을 말씀해 주시죠.

“신진연구인력 지원에 역점을 두려고요.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하던 과학자들도 귀국하면 실험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갖추느라 5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또 연구장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젊은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 않고는 우리나라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내기 힘듭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대부분 박사학위를 받은 후 5~10년 내인 30대 중·후반에 수상 업적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자들은 연구지원 부족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대부분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올해 신진 연구자 지원에 7백90억원을 씁니다. 지난해보다 1백70억원 가량 늘렸죠. 연구장비비를 포함해 5년간 총 12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우수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했고 5년간 총 7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우수 박사 후 연수사업도 신설했습니다.”

－ 이와 연장선에서 ‘성실실패 용인제’란 말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질 높은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비교적 실패 위험이 적은 연구에 치중해 고만고만한 성과를 내는 데 그쳤죠. 우리나라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모방·



“말로만 ‘과학중심’ 사회… 핵심 교양으로 삼아 공부해야”

추격형에서 창조·선도형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연구 지원방식과 풍토도 개선돼야 합니다.

올해 모험연구 46개 과제를 공모했는데 경쟁률이 상반기 34대 1, 하반기 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예비 결과평가에서 탈락했던 4개 과제가 모두 성실실패로 인정되기도 했지요.”

– 무슨 일이든 확실히 믿고 맡겨줘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결과평가를 안 합니다. 그동안 해온 연구성과와 새로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판단해 지원금을 줍니다. 미국이 Grant(순수 지원금)라면 우리는 Contract(계약에 기반한 지원)의 개념이 강하죠.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결과물을 중요시 여긴데 반해 미국은 지원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인류의 지적재산에 얼마나 기여하고, 얼마나 독창적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다고 봐요. 성실실패 용인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야죠.”

– 서울대 연구지원 규모는.

“기관 중에 서울대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서울대에 1천5백73억원을 지원했고, 다음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1천5백28억원), 한국원자력연구원(1천1백83억원), 연세대(7백5억원), 한국과학기술원(6백92억원), 고려대(6백53억원), 포항공대(4백27억원) 순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재단은 작년에 연구개발 부문에 1조6천4백85억원, 학술진흥 부문에 1조8백21억원을 투입해 총 2조7천3백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단체는 1천6백96개에 달하고요.”

–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돼야 한다고 하지만 이공계 인재부족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의 현주소를 진단해 주신다면.

“높은 분들이 과학 행사에 와서 인사말을 할 때 잘 쓰는 상투적 문구가 있어요. ‘나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과학 관련 행사에 와서 이런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이죠. 과학이 현대사회에서 핵심 교양이란 점을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 주변의 큰 사건 중에 과학과 연관된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광우병 사태, 일본 원전 붕괴 등을 봐도 알 수 있죠. 과거처럼 전문가들이 원자력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도 사람들이 믿는 시대가 아니죠.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의 두려움, 의문을 충분히 풀어주고 아는 만큼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하고 대중들은 과학 이슈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죠. 많은 과학자들이 대중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 돼야하고 대중들도 핵심 교양으로 생각하고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 지난 학기에 서울대 공대 박사과정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학비를 비롯해 기숙사 생활이 보장되죠. 서울대는 이공계 장학금을 경쟁을 통해 반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과거에 포항공대와 서울대에 동시 합격하면 90%가 서울대에 왔지만 지금

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 능력은 비슷해졌고, 학비와 기숙사까지 제공하니 학생 유치에 불리한 거죠.

물론 서울대가 장점도 많죠. 자연대 학장 시절에 자연대, 공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학기 동안 주관한 적이 있어요. 학기말에 한 공대생에게 ‘서울대 온 것을 후회하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인문, 사회, 예술대 친구들도 만나고 교양수업도 듣다 보니 자기 자신이 굉장히 넓어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에 간 친구들을 만나보면 폭이 좁은 느낌을 받는데요. 종합대로서 강점이 분명 있어요. 앞으로 학문의 방향은 융합인데, 그런 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고요. 학생들이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 공대생 특유의 ‘홀로 정신’을 비판하는 분들도 계세요.

“공대 출신의 경영대



71년 모교 수석으로 입학한 수재

“동문들 좀 더 단합해 모교 돕자”

교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팀 과제를 내주면 수강 학생 중에 누가 공대생인지 경영대생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대 학생들은 팀 과제를 내주면 적당히 해도 물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아하는 반면, 공대생들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누가 한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결과물로 평가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죠. 혼자 실험하고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이공계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회사의 일이 대부분 협업인데 학생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배어 있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 문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학생들이 변할 필요가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의 경우에도 공동 작업을 통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혼자 뭘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공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 그런 관점에서 과거 사회, 인문, 자연이 어우러졌던 문리대를 부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문리대 마지막 세대입니다. 문리대 출신들은 문리대에 대한 짝은 향수가 있죠. 朴婉緒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문과에 들어갔는데 문리대 프라이드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 그때 학생들은 대학은 문리대와 다른 대학이 있다고 하더라. 제가 다닐 때도 사실 인문, 사회학 강의를 많이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캠퍼스에 있으면서 공유하는 어떤 분위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데모도 같이 했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문리대가 부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 단위로 독립하면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자주 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합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강하죠. 서울대에 자유전공학부가 있잖아요. 그 학부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죠.”

– 서울대에서 창의적인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도쿄대와 교토대를 비교해 보면 교토대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도쿄대는 정부 일을 많이 하고 교토대는 그런 일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학풍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도쿄대는 일본 대학 전체를 끌어간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서울대도 도쿄대와 비슷한 처지죠. 서울대도 모든 학문 분야를 다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죠. 이공계의 몇몇 분야는 과감하게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공대나 카이스트가 잘 하는 분야는 그쪽에 넘길 필요도 있고요.”

– 수석으로 입하셨어요. 저 때도 물리학과 학생이 전체 수석이었을 정도로 수재들이 많이 들어갔죠. 물리학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물리는 단어 그대로 세상의 이치잖아요. 저는 실용적인 면이 강해서 우주의 기원, 뭐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고체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분야죠.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하는데, 지금은 여기 일을 하고 있어서 학교로 돌아간 다음에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도쿄대 고시바 마사토시 명예교수는 일본의 한 폐광에서 지구로부터 17만 광년 떨어진 초신성의 폭발로 나온 중성미자 12개를 검출해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학사 학위자로서 노벨 과학상을 처음으로 수상한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 씨는 노벨상 수상 후에도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며 이사로 승진시키겠다는 회사의 제의도 거부하고 연구실로 돌아갈 만큼 연구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한 열정적인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냥 잡니다(웃음). 취미로 테니스를 좀 하고 최근에는 조깅을 즐깁니다.”

– 서울대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 교수는 누가 계신가요.

“사회대 宋虎根(사회75-79)교수와 친합니다. 후배인데 서로 소주 좋아하고 통하는 면도 있고 해서 잘 지냅니다. 黃昌圭(전기공학72-76)前삼성전자 사장도 배울게 많은 분이시고요.”

– 가족 가운데 동문이 있나요.

“늦게 결혼해서 딸이 한 명인데 대학생이에요. 지금 연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큰 형님(吳世赫 화학공학64-68), 누나(吳慶子 영문67-71), 여동생(吳文子 불문74-78)이 동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우리 동문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동문들의 응집력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면 정부에 기댈 수 없거든요. 동문들이 단합해 서울대를 확실히 도와주십시오.”

(사진·정리=金南柱기자)

평의원회 긴급회의 소집

재학생 행정관 점거사태 논의

모교 소식

모교 평의원회(의장 朴杉沃)는 지난 6월 3일 관악캠퍼스 호암교 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재학생 행정관 점거사태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30일 모교 법인화를 반대하는 재학생들이 대학본부인 행정관을 점거하는 집단행동으로 교내 행정업무와 각종 민원업무가 중단된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평의원회 의견서를 발표했다.



평의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朴杉沃의장

朴杉沃의장은 “평의원회도 법인화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서 대학 본부와 협력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이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대학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학생들이 행정관 점거를 즉각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본부가 학생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법인화와 관련해 대학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 본부가 추진하는 기본 내용을 되도록 빨리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융합과학 기술대학원 安哲秀원장 임명



지난 6월 10일 모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KAIST 安哲秀(의학80-86)석좌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安원장은 1962년 부산 출신으로 1991년 모교 대학원에서 전기생리학 박사학위, 199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공대에서 기술경영학 석사학위, 2008년 미국 와튼스쿨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모교에 융합연구 플랫폼 만들터”

디지털정보융합학과 교수직을 겸임한 安원장은 단국대 의대 감사, 안철수연구소 대표, 소프트웨어벤처협회회장 등 각종 단체와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의학·공학·경영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으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安원장은 임명식 후 인터뷰에서 “학계에서 여전히 비주류인 융합 학문을 뿌리 내리기 위해 서울대에 왔다”며 “관악캠퍼스에 융합연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제1회 나형주 장학금 수여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朴恩雨)은 지난 6월 9일 농생대 대회 의실에서 제1회 ‘나형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故 나형주 군은 지난 2009년 야외교육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숨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번 장학기금은 나형주 군의 가족들이 기부한 보험금과 동문·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2억원으로 조성됐다.

나형주 군의 부친 나준식 씨는 “아들이 못다 이룬 학업에 대한 열정과 꿈을 장학금을 받는 여러 분들이 대신해서 이뤄주길 바란

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날 농생대는 가정형편과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선발된 오필영(산림환경07입)·임창식(식품생명공학07입)·황원하(산업인력개발08입)·조정래(원예과학09입)군 등 4명의 재학생에게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을 수여했다.

나형주 군의 가족과 농생대는 매년 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한 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계속해서 장학기금의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다.

의과대학 학생회

환아 진료비 지원

의과대학 학생회(회장 손봉연)는 지난 6월 20일 의류 판매를 통한 수익금 5백55만원 전액을 모교 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

이번에 출연된 기금은 만성설사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김형민(1세)환아의 진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회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모교 의대 상징 기념 옷을 계속해서 제작해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저소득층 어린이의 치료비를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任廷基학장은 “의대에서는 의학 전문 교육뿐만 아니



라 인성 교육도 중요시한다”며 “그 일환으로 학내에서 자발적인 기부 행사가 기획됐으며 이런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더욱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8월 12일까지 후보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21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모교 후배와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는 적격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8월 12일까지 모교 기획처(전화:880-5247, 팩스:871-4213, e메일:nayujoo@snu.ac.kr)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榮>

NHN과 학술지 DB 구축

이용자에 우수 지적 자산 제공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 6월 20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국내 최고 인터넷기업 NHN(대표 金相憲 사법82-86)과 국내학술지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발전기금 李明哲부이사장, 중앙도서관 朴枝香관장, NHN 金相憲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교와 NHN은 인용색인이 포함된 데이터베이

스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학술지 구독료 5억원을 중앙도서관 학술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번에 구축되는 자료들은 모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58만 권에 해당하는 인쇄물 형태의 논문이다. 구축작업은 모교와 NHN이 공동으로 3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학술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인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모교는 이번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모



NHN 金相憲대표·吳然天총장

교가 가진 우수한 지적 자산을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제공해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국립대로서 지식공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과대학

세계 10위권 도약 위한 ‘감사의 밤’



공과대학(학장 姜泰晋)은 지난 7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해동학술문화관 4층 다목적 학술문화실에서 20여 명의 동문을 초청한 가운데 제1회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姜泰晋학장은 환영사에서 “서울대 공대는 현재 세계 단과대 순위 27위이지만 ‘ENVISION 2020’을 선포한 대로 2020년 세계 10위권 공과대학으로 거듭나겠다”며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공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공과대학이 세계 일류 대학으로 거듭나며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원은 모교를 세계 10위권의 명문대학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과대학은 ‘캠퍼스 재창조’를 주제로 ▲글로벌공학교육센터 건립 ▲건물 리모델링(30동·33동) ▲중앙광장 휴식공간 마련 ▲일본

해동기술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교 관악캠퍼스내 1만7천㎡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공학교육센터는 3백90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발전기금 재원으로 기존 공대 건물 38동을 재건축해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미술관

오마르 갈리아니 작품展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한 이탈리아문화관과 공동으로 ‘오마르 갈리아니—서울의 혼’ 작품전을 개최한다.

1954년 이탈리아 출신인 오마르 갈리아니는 유럽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화 작가로서 다층적 표현 양식으로 상반되는 개념을 한 작품에 담아 왔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입장은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월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 880-9504〉 〈榮〉

재학생의 소리



방학때 ‘괴나리붓짐’ 메고 전국여행



李 炳 柱

(재료공학08입)

여행동아리 ‘괴나리’ 회장

안녕하세요. 무더운 더위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서울대 여행동아리 ‘괴나리’ 회장인 재료공학부 2008학번 李炳柱입니다.

‘괴나리’는 걸어서 먼 길을 떠날 때에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는 작은 짐이라는 괴나리붓짐의 줄임말로 테마가 있는 여행동아리 이름입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 동아리 이름처럼 간편한 짐을 지고 전국에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곳곳을 찾아 떠납니다.

대학생활이 학점취득과 취업준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을 직접 배우고 느끼며 선배들과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대학시절 이런 여행의 추억과 낭만은 선배님들께서 가장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추억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몸을 부대끼며 함께 여행의 주제를 선정하고 장소를 탐방하며 선조들의 옛 정신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현재 저희들은 점점 더 사회인으로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세대 속에서도, 힘을 내 학생들 간의 친목과 우애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활

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에 비해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다양한 자치활동을 해나가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재정적 여건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선배님들이 애독해 주시는 동창회보가 4백호를 맞이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회보의 4백호 특집을 축하하며 저희들 또한 선배님들이 닦아 놓으신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일상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이 자치문화 활동을 꽃피울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콩트 릴레이

先手

金河鏡(본명 金美順)
(국어교육64-68)소설가



불이 꺼졌다. 객석은 텅 빈 우주공간처럼 깊은 정적에 잠겼다. 어디선가 쇠아아 바람소리가 들렸다. 스크린이 천천히 밝아졌다. 벼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 들판이 스크린 전체에 가득 찼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윽고 젖은 듯 나즈막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목소리인데도 남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영 낮설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계속 앉아서 지켜보기가 더 이상 힘 들었다.

몸을 잔뜩 숙이고 객석 사이를 빠져나왔다. 바깥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담배를 한 개비 뽑아 입술에 물었다. 금연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 나는 화풀이하듯 라이터 뚜껑을 탁 닫

“

결혼할 때 아이가 생기면
영화를 단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화근이었다.
영화관에서 내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리라.
속으로 단단히 버리고 또 별렀다.

”

았다.

잘 됐건 못 됐건 이제 막은 올랐다. 내 손으로 만든 영화지만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더 이상 내 영화가 아니다. 관객의 영화다. 후회도 아쉬움도 많지만 내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번 영화는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 20분 인권의 단편영화를 전경인 아들과 농민인 아버지의 대결 신으로 채우는 건 누가 봐도 택도 없는 소리였다. 처음 콘티를 보자마자 촬영감독이 웃었다. 아니 이걸 하루 안에 다 찍겠다구요? 그의 눈에서 환청이 들렸다.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적 보면 구만리지. 농민과 전경 엑스트라만 수십 명에, 배우와 스탠프 수십 명까지 합치면 백여 명이 넘는다. 이런 오합지졸과는 어떤 노련한 감독도 불가능한 일이다.

한마디로 무식해서 용감했다고나 할까. 촬영팀의 예상이 정확히 맞았다. 낮 신도 밤 신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찍지 못했다. 우왕좌왕 준비만 하다가 급작 같은 시간만 다 버렸다. 제대로 찍는다 싶으면 어느 새 해가 져고, 된다 싶으면 순식간에 먼동이 났다. 하늘

마저 도와주지 않았다.

프로듀서와 조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 구동성으로 하루 더 찍자고 했다. 돈도 돈이지만 작품의 완성도가 먼저 아닌가. 하지만 작품만 생각하다간 밀 빠진 독처럼 돈이 끝없이 들어간다. 돈에 맞춰야한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끝내야한다. 이게 독립영화의 한계다.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함량미달의 작품을 내놓을 순 없다. 돈돈돈 하며 돈의 노예가 된다면 상업영화와 다른 게 뭔가. 갈광질광 갈등이 계속되었다.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다.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 (서양화02-07)

하루만, 단 하루만, 더 있다면. 하지만 하루가 어찌 그냥 하루이겠는가. 돈으로 치면 천만 원 짜리 하루다. 배우와 스탠프들에게 최저수준이지만 일당도 줘야하고, 카메라, 조명, 음향 기기의 렌트 비용도 계산해야한다. 세끼 밥에 잡자리까지, 모든 게 다 돈이다. 택시 미터기보다 빠르게 숫자가 올라간다.

하지만 단지 돈 때문이 아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해야 한다. 일 년치 휴가를 아껴모아 일주일 휴가를 받았는데 하루 더 빠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게다가 6개월 전 한 후배가 셰프(Chef)가 되겠다며 갑자기 시작하는 바람에 업무량이 배로 늘었다. 사람을 새로 충원하지 않으니 남은 사람들이 죽을 맛이였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신세에 불평해봤자 내 얼굴에 짐 빨기다.

안 그래도 육체만 고된 게 아니다. 후배한테 받은 정신적 충격도 이만저만 아니다.

“선배는 영화에 미친 데다가 재능도 있잖아요? 나라면 벌써 회사 때려치고 영화에 올인

했을 겁니다.”

이때처럼 후배가 부러운 적이 없었다. 돈 많고 출세한 사람보다 일류 주방장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미련없이 사표를 내던진 후배가 몇 배 더 부러웠다. 며칠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자신감도 의욕도 잃은 채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그즈음 부터였을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당장 사표를 내겠다고 결심하고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 때면 아침의 결심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 대신, 39살이라는 숫자 위로 부양해야할 부모님과 아이를 낳자고 졸라대는 아내의 얼굴이 악몽처럼 꿈자리를 어지럽혔다.

첫 영화 때문에 진 빚을 다 갚자마자, 그동안 묵혀둔 시나리오를 다시 손질해 두 번째 영화 찍기에 들어갔다. 사표를 내기에 앞서, 과연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영화를 찍겠다는 말에 아내의 태도가 돌변했다. 첫 영화 때만 해도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듯 마지못해 바라봐주더니 이번엔 이전과 영판 달랐다.

사실 아내는 결혼하면 내가 영화를 단념할 거라고 혼자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빛까지 내서 영화를 찍는 걸 보고 아내도 이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다. 영화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닫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곤 입만 열면 아이 이야기를 꺼

냈다. 결혼할 때 아이가 생기면 영화를 단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화근이었다. 영화관에서 내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게 모두에게 죄를 덜 짓는 최선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불상사를 막으려고 나름 대로는 남몰래 온갖 안간힘을 써왔다.

그런데 결국 아내가 선전포고를 했다. 하필이면 돈을 꾸러 다닌다고 한창 정신이 없을 때였다. 앞으로는 영화와 관련한 모든 걸 자기 모르게 해달라고 했다. 자기가 모르는 일은 없는 일로 치겠다는 것이다. 촬영장으로 짐

을 싸서 나올 때도 아내는 내다보지도 않았다. 건성으로라도 잘 다녀오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집을 나서면서 나는 다짐했다. 이번에 영화가 끝나면 꼭 사표를 던지리라.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리라. 속으로 단단히 버리고 또 별렀다.

영화에 올인 하면 앞으로 영화 찍을 날이 새털같이 많을 것이다. 하루가 대수겠는가.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총알이 총구에서 발사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여기서 끝냅시다!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렇게 촬영장을 접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이 허탈했다.

그 허탈함을 메우려고 편집에 매달렸다. 사회는 한 달 뒤로 잡혀 있었다. 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짜깁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화면 저 화면에서 이리저리 찢어다 여기저기에 붙였다. 아무리 갑작같이 이어 붙여도 내 눈에 다 보였다. 똑같은 화면이 앞에도 나 오고 뒤에도 나온 걸 볼 때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관객들이 눈치 챌까봐 조마조마했다. 쥐

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차마 태연하게 앉아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복도를 이리저리 서성였다.

그 때였다. 갑자기 상영관 안에서 푹푹 같은 웃음소리가 터졌다. 음악소리로 미루어 어느 장면인지 알 것 같다. 저 대목에서 안 웃으면 끝장인데 하고 안절부절 떨고 있었는데, 마침내 기다리던 큰 웃음이 빵 터진 것이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감독의 의도가 정확하게 관객들과 맞아 떨어져 공감을 이룰 때, 그 순간의 희열은 누구도 모를 거다. 뽕 간다는 말 그대로다. 그 맛에 영화를 만드는 건지 모른다. 관객의 웃음소리에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빗덩이가 눈 녹듯 사라졌다. 갑자기 안이 금금해졌다. 다시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다. 맨 뒷좌석 뒤에 서있는 관객들 사이에 뒤섞여 한참 스크린을 응시했다.

이윽고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천천히 자막이 올라갔다. 나는 긴장했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박수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불이 켜졌다.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힘찬 기립 박수를 보냈다. 장하연! 장하연! 장하연! 내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파도소리처럼 밀려왔다. 휘파람 소리가 확확 날았다. 불꽃놀이 하듯 여기저기서 환호가 광광 터졌다. 꿈만 같았다. 그제 바로 이거야. 그래서 영화에 미치는 거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짓을 할 수 있나. 제 정신으로는 안 돼. 상영시간 총 18분, 이 단 18분을 위해 천만 원을 아낌없이 쓰려면 미쳐도 단단히 미쳐야한다.

뒷풀이 자리에서도 감동은 계속 이어졌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소품을 담당하던 두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농민 역을 맡은 이훈남과 분장 실습 나온 미용실 아가씨는 서로 눈이 맞았다. 농민 엑스트라 역을 맡은 배씨 아저씨는 슈퍼마켓을 통째로 아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이제부터 프로 배우의 길을 선택했다고 당당히 소리쳤다. 조감독을 맡은 오유미도 회사를 그만두고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다고 수줍게 털어놓았다. 당분간은 영화관 매표소에서 일하다가, 자격증을 따면 본격적으로 영화감독의 길로 나갈 거라고 했다.

“감독님 덕분에입니다.”

몇 번이나 술잔을 마주치며 건배를 했는지 모른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줄 몰랐다.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바뀌주면서 정작 내 자신의 인생은 바꾸지 못하더니, 술의 힘을 빌어 용기백배한 걸까.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저도 내일 당장 사표 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영화에만 올인하겠습니다!”

“우와아. 축하합니다.” “대박 나세요.”

여기저기서 술잔이 정신 없이 날아 왔다. 언제 누가 어떻게 나를 집까지 데려다줬는지 모른다. 아침에 눈을 뜨니 안방 침대에 숙웃만 입은 채 누워있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출근 채비를 하고 현관으로 내려섰다. 뒤에서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나를 불러 세웠다.

“오늘 사직서 낸다면서요? 어젯밤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데요.”

나는 나쁜 짓이라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나 임신 3개월이래요. 어제 병원에 가서 확인 받고 왔어요.”

두 다리가 휘청하는 순간 나는 일련 현관문을 딱 붙들었다.

동 정

수 상

▲張忠植(역사교육52입 단국대 명예총장·범은 장학재단 이사장)=지난 6월 22일 국제로타리가 수여하는 ‘超我的 봉사상’ 수상.

▲辛東韶(임학53-57 모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지난 6월 1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禹鍾昊(중문60-64 前駐오만 대사·前한일협력위원회 사무총장)=지난 6월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旭日中綬章 수훈자

에 선정.
▲宋基中(국문61-65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6월 9일 서울 동숭동-石기념관에서 제9회 일석국어학상 수상.

▲李瑞九(화학65졸 이화여대 석좌교수)=지난 5월 31일 이화여대 창립 125주년 기념식에서 제7회 이화학술상 수상.

▲趙英雄(수의학63-67 닥터조 대표)=최근 수필 ‘절살이’로 제4회 에세이 포레 신인상(수필부문) 수상.

▲李錫采(경영64-68 KT 회장)=지난 6월 7일 미국 전기전자엔지니어 협회(IEEE) 산하 커뮤니케이션 소사이어티로부터 ‘최고 산업리더상’ 수상. 또 23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20회 茶山경영상 수상.

▲朴鍾根(전기공학69-73 모교 전기공학부 교수)=지난 6월 30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1회 한전학술대상 수상.
▲全英愛(독문73졸 모교 독어독문학과 교수)=지난 6월 16일 독일 바이마르국립국장에서 바이마르 괴테학회가 수여하는 괴테 금메달 수상.

▲金泰由(자원공학70-74 모교 공대 협동과정 교수)=지난 6월 30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1회 한전학술대상 수상.

▲徐鎭浩(화학공학72-76 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지난 6월 13일 서울 역삼동 두폰코리아에서 제9회 두폰과 학기술상 수상.

▲鄭濟昌(전자공학76-80 한양대 교수)=지난 5월 19일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녹조 근정훈장 수훈.

▲李穆熙(외교78-82 서울신문 편집국장)=지난 6월 9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7회 한국 참언

론인 대상(뉴미디어부문) 수상.
▲全榮基(정치80-84 중앙일보 편집국장)=지난 6월 9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7회 한국 참언론인 대상(논설부문) 수상.
▲姜仁仙(외교84-88 조선일보 국제부장)=지난 6월 9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7회 한국 참언론인 대상(국제부문) 수상.

▲皮智薰(의학93-00 모교 소아신경외과 교수)=지난 6월 16일 대한소아내과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아해 우수연구상’ 수상.
▲崔正煥(ACAD 69기 인제대 일산백병원 사무국장)=지난 4월 12일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제1회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姜普英(HPM 1기 안동병원 이사장)=최근 한미약품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공동 제정한 제5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수상.

▲鄭亨伯(SPARC 17기 위너콤 대표)=지난 5월 12일 제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鄭秉起(농경제52-57 前세계은행 농업건설팀장)=지난 6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관 탁구사랑동우회 명예회장에 추대.
▲金學俊(정치61-65 KAIST 김보정석좌교수·동아일보 고문)=지난 6월 15일 단국대 제23대 이사장에 취임.

인 사

▲李興植(수의학61-65 모교 수의학과 명예교수)=지난 6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초대 원장에 취임.
▲孫 郁(기계공학63-67 前농심회장·모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지난 6월 10일 전라남

도 광양시 홍보대사에 위촉.
▲潘基文(외교63-70 유엔 사무총장)=지난 6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임기 5년의 유엔 사무총장에 재선임.

▲黃善泰(법학66-70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지난 6월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 취임.

▲崔在炫(수의학66-70 미국 Francis Animal Hospital 대표)=지난 7월 1일 임기 2년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회장에 취임.
▲張錫孝(농공학67-74 前서울시 건설안전관리 본부장·행정2부시장)=지난 6월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

▲李 仁(항공공학68-72 KAIST 교수·난정항공항전대 명예교수)=최근 임기 3년의 미국 항공우주학회 이사에 선출.
▲李振朱(의학68-74 국립암센터 원장)=지난 6월 20일 임기 3년의 국립암센터 제5대 원장에 재선임.

▲崔炳寅(의학68-74 모교 영상의학교실 교수)=지난 5월 15~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영상의학전문학회(ACR) 학술대회에서 명예 펠로우에 선정.
▲金承祚(항공공학69-73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지난 6월 21일 임기 3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 취임.

▲崔炳瑞(독문71-75 동덕여대 교수)=지난 7월 1일 임기 1년의 한국문화경제학회 제10대 회장에 취임.
▲姜起敬(역사교육73-77 前강원도 행정부지사)=지난 6월 21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제10대 사장에 선임.

▲李俊雄(행정대원73-75 前행정대학원동창회 사무총장)=지난 6월 1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 감사에 취임.

▲洪錫禹(무역74-80 前중소기업청장·AT커니아 부회장)=지난 6월 22일 KOTRA 사장에 취임.



▲宋世安(화학75-79 삼성종합기술원 연구마스터)=지난 5월 27일 임기 4년의 국제마이크로빔분석학회연합회장에 선임.



▲洪準亨(법학75-79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지난 6월 24일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1대 회장에 취임.



▲李永錫(IFP 4기 판브릿지코리아 법인장)=지난 6월 15일 유스트&판브릿지 인터내셔널 아시아 총괄 부사장에 취임.



행 사

▲金許男(행정49-52 신라문화선양회 이사장)=지난 6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출판기념회 개최.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지난 6월 15일 서울 대치동 새마을운동중앙회 강당에서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관련 시상식 개최.



▲李相禹(행정57-61 신아시아연구소장·한일문화교류기금이사장)=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왜구-악탈의 시대에서 공존의 시대'를 주제로 한일문화강좌 개최.



▲司空晄(상학58-64 한국무역협회 회장)=지난 6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회 아랍문화·관광 특별전 개최.



▲徐丙喆(독문59-63 한미비전협회 이사장·지오디스윌슨 회장)=지난 5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동북아 안보환

경 변화와 한미협력'을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李炯均(정치59-64 경향신문 사우회장·한국기자협회 고문·본회 부회장)=지난 6월 27일 서울 을지로1가 맥스광장에서 경향신문 사우회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 개최.



▲李玉姬(기악60-64 서울튜티앙상블 대표·피아니스트)=지난 7월 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서울튜티앙상블 창단 23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金明子(화학62-66 그린코리아 21포럼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5월 20일 원자력 르네상스의 미래를 다룬 '원자력 딜레마'(사이언스북스刊) 출간.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5월 26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수원출신 미술사학자 吳柱錫(동양사학79졸)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심포지엄 개최.



▲金春玉(회화64-68 한국화여성작가회 고문·한국미협 수석부이사장)=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서울 신사동 필립강 갤러리에서 '자연-관계성' 작품으로 개인전 개최.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교수)=지난 6월 10~17일 건국대 공예관 화랑에서 도자공예전공 창설 41주년 기념품·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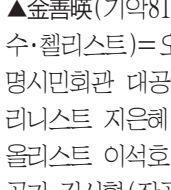
전 개최.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상임대표·관악회 이사)=지난 6월 7일 한국청소년상담원 강당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朴惠暎(응용미술76-80 강원여성문화예술인연합회 부회장)=지난 6월 22~28일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프라자이행아트센터에서 제4회 개인전 개최.

▲徐孝淑(회화81-85 청주대 강사)=지난 6월 21~30일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가산화랑에서 '생명의 변주'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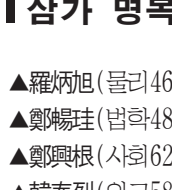
▲金善暎(기악81-85 종신대 교수·첼리스트)=오는 7월 16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지은혜(기악87-91)·비올리스트 이석호(기악87-91)·작곡가 김시형(작곡92-96)등문 등과 함께 에클레시아 현악4중주 연주회 개최.



▲孫 勳(토목공학88-92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부교수·KAIST지정 석좌교수)=최근 미국 뉴저지주 웨인카운티 웨인교에서 텃거스대 교수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연구진과 함께 교량노후에 관한 국제연구 진행. 현지 신문과 TV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송민정(기악03-07 서경대 강사·퍼커셔니스트)=지난 7월 4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타악기 독주회 개최.

▲박하선(기악95-99 피아니스트)=지난 6월 26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바흐,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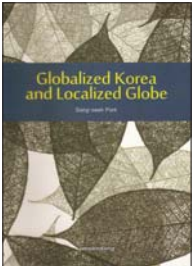
▲羅炳旭(물리46-49 경북대 명예교수)=6월 10일 별세(86세)
▲鄭錫珪(법학48-51 前중북관세사무소 대표)=6월 22일 별세(88세)
▲鄭興根(사회62졸 前한보철강 사장)=6월 18일 별세(73세)
▲韓泰烈(외교58-62 前인하대 교수)=6월 10일 별세(71세)
▲李相晩(물리63졸 前국회의원)=6월 23일 별세(72세)
▲宋在雄(법학61-67 보림월드 대표)=6월 22일 별세(70세)
▲安在勳(국문65졸 자유아시아방송 국장)=6월 1일 별세(70세)
▲金光會(전기공학69졸 UC버바인대 교수)=6월 2일 별세(64세)
▲任祥奎(금속공학68-72 순천대 총장)=6월 13일 별세(62세)
▲李元龍(의학80-86 성균관대 교수)=6월 2일 별세(50세)
▲金陞輝(경영89-94 변호사)=6월 7일 별세(40세)
▲金昌熙(AMP 16기 前대우증권 사장)=6월 28일 별세(74세)
▲閔泰求(AMP 18기 前국회의원)=6월 29일 별세(77세)
▲張鳳龍(AMP 25기 진로발효 회장)=6월 19일 별세(63세)
▲崔允信(AMP 47기 동양고속건설 회장)=6월 10일 별세(67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Globalized Korea
and Localized Globe
－ 朴尙植 지음



駐 유네스코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 등을 지낸 朴尙植(영문54-59) 동문이 ‘세계화된 한국과 지방화된 세계’ 영문판을 펴냈다. 이 책은 과거 10년 동안 발생한 국제사태와 논쟁의 대상이 된 문제들, 즉 북핵문제, 6자 회담, 남북한 관계, 4강 관계, 미국 외교정책, 아태지역정치, 동아시아지역 지역주의, 유엔의 역할, 국제정치, 경제질서, 지구적 이슈와 재난, 범세계적 가치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朴동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구화와 비구가 조직의 역할증대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동북아의 안보환경과 세계안보, 경제질서를 예측해본다. 또 지구화 추세로 인해 국가중심체제가 지구중심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 <지문당刊·값23,000원>

■ 아! 선생님이...
－ 吳根泳 지음

동양통신 사회부장, 연합뉴스 편집국장, YTN 전무를 역임한 吳根泳(심리59-65)동문의 회고록. 총 3부로 나뉘 ‘내가 겪은 한국전쟁’은 吳동문이 춘천에서 직접 겪은 전쟁 이야기에 중요한 전사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나의 군생활’은 최전방에서의 군 생활기를 담았으며, ‘뉴스사세요’는 1950~70년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해온 통신기자의 삶을 담았다. <제이앤씨커뮤니티刊·값16,000원>

■ 동근 세모꼴
－ 柳岸津 지음



모교 소비자아동학부 柳岸津(교육61-65)명예교수가 새 시집을 내놓았다. 짧은 형태의 서정시를 가리키는 柳岸情詩시리즈 중 한 권이다. 종교와 신화, 예술과 페미니즘 이외에도 옛 애인과 흘러가는 세월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재치있게 빚어냈다.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시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느낀 인생의 깨달음과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진솔하고 담백한 시어들이 돋보인다. <서정시학刊·값9,000원>

■ 나비 날개에도 바람이 있다
－ 張文英 지음

통일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張文英(철학64-68)동문이 시집을 펴냈다. 60여 편의 시에는 정련된 지성, 온화한 감정과 결백한 의지가 녹아있어 知情意가 조화롭다.



張동문의 시를 읽고 시어와 행간에 담겨있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메시지를 음미하면 마치 깊은 산골 웅담샘에서 시원한 약수 한 잔을 마시는 듯 갈증이 풀리고, 저 높은 밤하늘 가득히 머리위로 쏟아질 듯 무수히 반짝이는 별 무리를 바라보며 가슴깊이 묻어둔 이야기들을 마음껏 털어놓을 벗을 만난 듯하다. <고려刊·값8,000원>

■ 바람과 떨림
－ 金泰賢 지음



순천향대 교학부총장을 지낸 미디어 콘텐츠학과 金泰賢(독문75-81)교수의 평론집. 이 책은 열린 세계를 열망하는 문학평론가의 근황을 압축하고 있다. 탄실한 리얼리즘과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 현실과 문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 이들과 동고동락한 현장비평가의 초상을 잘 보여준다. 또한 소통과 통섭의 시대에 절실한 비판적 지식인의 바람직한 행로를 제시한다. <이담복스刊·24,000원>

■ 아크로폴리스 2011
－ 아크로폴리스타임스 지음

미주동창회 온라인 신문 ‘아크로폴리스타임스’(편집장 李元榮 정치81-85)’가 창간 2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게재된 원고를 정리해 한 권에 담았다. 그동안 관악캠퍼스 출신들의 친

공 연

■ 임효재 오보에 독주회
－ 7월 22일 예술의 전당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과 함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임효재(기악00-04)동문(사진)이 7월 22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오보에 독주회를 개최한다. 카르포스 앙상블 멤버인 임동문은 이날 레이에, 플랑크, 브리튼, 도라티, 파스쿨리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조소연 피아노 독주회
－ 7월 26일 예술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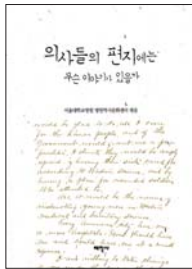
클랑트리오 멤버인 피아니스트 조소연(기악94-98) 동문(사진)이 7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그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조동문은 이날 모차르트, 리스트, 베토벤 등의 작품으로 열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목모임인 ‘관악연대’가 주축이 돼 저마다 특출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아크로폴리스타임스를 통해 나눴다. 특히 이 책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선배들에게는 후배들과 교감을 위해 좋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for book刊·값12,000원>

■ 의사들의 편지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 모교 병원역사문화센터

모교 병원역사문화센터가 역사



속 의사들의 편지를 통해 의사들이 동시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했으며 당대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소개한 책. 1부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을 되짚어보며 그것이 치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고, 2부에서는 근현대 동아시아 각 국에서 활동한 의사들의 편지와 보고서 등을 통해 당시의 역사상을 재조명했다. 이 책은 당시 의사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바탕으로 근대 의학사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고 각종 사진과 서신, 신문 기사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학사刊·값16,000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 회비 : 2011년 5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1. 4. 25~6. 20) · 일반 (2011. 5. 1~6. 20)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劉鐘海= 50만원
△부회장 徐廷和= 1백만원
△부회장 李吉女= 1백만원
△부회장 李海遠= 1백만원
△부회장 朴熙伯= 1백만원
△부회장 崔斗衡= 1백만원
△부회장 裴命仁= 1백만원
△부회장 成百詮= 1백만원
△부회장 李金器= 1백만원
△부회장 李俊鎔= 1백만원
△부회장 金贊淑= 1백만원
△부회장 李相周= 50만원
△부회장 孫京植= 1백만원
△부회장 崔秉烈= 50만원
△부회장 禹仁性= 1백만원
△부회장 朴成勳= 1백만원
△부회장 孫吉丞= 1백만원
△부회장 趙炳祐= 1백만원
△부회장 姜寅求= 1백만원
△부회장 劉常夫= 1백만원
△부회장 朴容晔= 1백만원
△부회장 朴浩田= 1백만원
△부회장 吳 明= 50만원
△부회장 金鍾燮= 1백만원
△부회장 金仁圭= 1백만원
△부회장 李鍾基= 1백만원
△부회장 張重桓= 1백만원
△부회장 愼昌宰= 1백만원
△부회장 鄭忠始= 1백만원
△부회장 鄭八道= 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金炯珠= 30만원
△이 사 李禮植= 30만원
△이 사 張世一= 30만원
△이 사 鄭啓泳= 30만원
△이 사 朴明潤= 30만원
△이 사 金秉順= 30만원
△감 사 金一燮= 30만원

상임이사

△朴武益 인문대동창회장= 20만원
△金靑弼 자연대동창회장= 20만원
△金慶漢 법대동창회장= 20만원
△鄭之碩 약대동창회장= 20만원
△徐桂淑 음대동창회장= 20만원
△咸鍾漢 교대원동창회장= 20만원
△金基炳 행대원동창회장= 20만원
△李弼雨 ACAD동창회장= 20만원
△曹白一 SGS동창회장= 20만원
△李世漢 AIC동창회장= 20만원
△徐綜都 ACPMP동창회장= 20만원
△咸光鮮 FIP동창회장= 20만원
△金勝濟 ALP동창회장= 20만원
△姜淳奎 IFP동창회장= 20만원

△柳東林 관악무역인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동균 공대80
△권영빈 문리61 △김국주 상대64
△김태우 치대77 △김해웅 공대72
△김호용 공대72 △박준석 약대63
△신장수 공대81 △안병근 법대78
△우성규 문리63 △유권상 상대68
△이복영 법대66 △이상록 의대83
△이승희 법대83 △이원호 공대74
△이의룡 상대66 △이재경 의대84
△이재연 생활74 △이창민 사대78
△이한배 공대60 △임효근 의대75
△장규섭 농대61 △정인조 공대71
△정현태 사대81 △조영임 음대94
△조좌진 GLP17 △한정록 경영76
△홍성표 공대67 △홍완기 AMP27
△황미리아 SPAR8

〈일반〉 △강응전 인문82
△강태승 공대95 △고상교 인문97
△권점주 AMP65 △김 현 HPM19
△김민혜 인문04 △김범주 공대95
△김상희 사회85 △김숙희 사대91
△김승욱 자연07 △김영권 사회84
△김영규 법대63 △김우구 AMP65
△김운섭 AMP61 △김일웅 농대83
△김종서 사대46 △김창현 사회87
△김희재 음대03 △노문옥 사회74
△류한수 공대01 △박경기 IFP1
△박숙자 농대62 △박정수 GLP14
△박종술 문리55 △박철원 법대83
△박철희 법대92 △박형규 HPM22
△방교윤 공대64 △배영근 AIP43
△성상희 법대82 △심혜인 사회03
△안대영 인문91 △안장석 공대81
△양호정 농대94 △오명숙 사대40
△이기석 사대59 △이난형 생활83
△이명희 음대70 △이상석 사대59
△이상훈 공대92 △이여백 농대89
△이영진 인문91 △이재선 생활94
△이준희 약대65 △이호찬 敎院91
△임준호 법대77 △장 일 법대86
△장현희 ASP20 △장종필 인문93
△정병철 環院83 △정연문 HPM26
△정윤혜 사회01 △조경환 공대69
△조구래 保院04 △조규항 농대63
△조도근 사대57 △조태진 자연74
△주우진 경영79 △지동하 行院88
△최순만 약대67 △최창욱 상대68
△한광석 공대76

이 사

◆인문대 △권영대83 △김창범82
△나성린72 △손예철69 △유 식79
△임미화83 △전원배73 △한봉희77

◆사회대 △강암구72 △강종표76
△김광녕82 △김구섭72 △김영섭81
△김용숙76 △김용표81 △박경재74
△박병룡80 △박재완73 △박재하77
△박중욱81 △박홍근78 △방창식83
△손광락74 △신철식73 △유성엽80
△이주형72 △임유철84 △정금채71
△정석구77 △최금락76 △최범수75
△최영선77 △최익순73 △황기호77

◆자연대 △박승용74 △신재광82
△양우현87 △이상영75 △이은용72
△이철의75 △이한형73 △정민화84
△최진우75 △홍광현77

◆간호대 △박선애73

◆경영대 △김명관82 △김종환92
△김홍섭79 △박종완71 △백우현74
△변재진72 △서준호86 △오민철83
△이영현80 △이인환79 △임근상80
△진영근75 △최기상88

◆공대 △강경일75 △강송구71
△구자일77 △권명옥76 △권용수81
△김남호70 △김병규76 △김병길64
△김성년68 △김연철67 △김영수58
△김영식66 △김영호78 △김은영56
△김인선65 △김재수77 △김제영71
△김철수70 △김학세65 △김형남60
△김홍식76 △노무수63 △노철균70
△노태욱69 △노흥규66 △박경명66
△박기찬64 △박노상57 △박상언71
△박성규57 △박영길78 △박우규70
△박일재78 △박종택48 △박찬빈60
△박호견69 △백상엽86 △백승환71
△백영학49 △서완수69 △서태석76
△석동균74 △손갑현70 △송우길84
△승효상71 △신동식72 △신영수74
△신항식67 △안순신69 △양 갑68
△어성준67 △오성환59 △오세기64
△우상룡72 △우진대71 △유승빈63
△윤국노62 △윤세환79 △윤준도75
△윤종성81 △윤춘호70 △이 철68
△이건우74 △이계수63 △이관수68
△이대성89 △이상준76 △이상형68
△이여종68 △이영환76 △이윤표77
△이종구84 △이종화76 △이종재64
△장동욱49 △장진양67 △장진호72
△장학순46 △전효택67 △장기출73
△정금영77 △정현일60 △정형수59
△조남혁57 △조대승81 △조명호78
△조장현64 △진영준67 △최낙삼77
△최완철69 △최재열69 △최준식71
△최효범77 △편도권54 △하서용87
△하태균86 △한도석78 △한재성79
△홍광표54 △황 철71 △황규승64

◆농대 △곽소수60 △곽유신82
△금대섭73 △김상호56 △김시흥69
△김정호73 △김태수66 △김풍진71
△김현구50 △김홍배81 △류기락81
△목세균63 △민경택88 △박동선58
△박인욱84 △배정길61 △서득성58
△석준호55 △성수일66 △손권규64

△양성용73 △왕진무60 △유문일66
△이상걸79 △이임영81 △이재영66
△이학재83 △임봉주65 △장석효67
△정일성62 △정진구65 △정창주53
△조진환50 △최주섭67 △최찬식56
△한정식71

◆문리대 △고영소56 △김 명67
△김치수60 △김현출62 △남광성61
△남궁견59 △문희수60 △박동수46
△박용길66 △박정무59 △복진태66
△신상우64 △신정용61 △안취준61
△오거돈67 △오수국72 △오영일61
△유덕상68 △유보일60 △유순애70
△유재천57 △윤상철55 △윤호미61
△윤홍근63 △이경재60 △이기원50
△이병기66 △이상원71 △이영록66
△이용태63 △이정길59 △이제훈58
△이종한62 △이종희54 △이형구59
△임석진52 △임정빈66 △임희섭55
△장종석70 △정만조65 △정연하61
△조완규48 △지경홍60 △차흥봉62
△채영수68 △하영식58 △한영우57
△홍두표55 △홍성훈55

◆미대 △김현실66 △성기점58
△송복희74 △이경렬69 △임홍순48
△조정승59

◆법대 △강동세77 △강용식58
△경종철60 △고의영77 △곽현수72
△권동렬59 △권오윤56 △김경태63
△김동호56 △김두식76 △김두희58
△김병국66 △김봉학70 △김성수68
△김승호62 △김연근85 △김영갑74
△김용원59 △김용환72 △김우진83
△김운용81 △김유동86 △김이수72
△김인호60 △김종삼65 △김종일52
△김진만60 △김진우52 △김현석79
△김홍걸70 △김흥면72 △나경원82
△문성우75 △문영길55 △민일영74
△박병명74 △박성원81 △박승문78
△박영렬75 △박영수52 △박용수68
△박재경57 △박재권66 △박종성73
△박준서58 △박준서59 △박충근68
△박태석77 △배 도53 △변학남52
△서규택55 △서원태67 △송병대67
△안병우66 △안성희66 △안종택73
△여상조70 △오석준80 △오시열75
△유남석76 △윤경희65 △윤교중65
△윤호일61 △이덕모71 △이동흙68
△이무룡61 △이시철71 △이상배58
△이상주82 △이상형70 △이인재73
△이재철77 △이지형85 △이진배65
△이창구66 △이태창61 △전응진49
△정도출68 △정문화59 △정세용74
△정해주63 △제차룡60 △조상흙67
△조용경70 △조종환65 △주진학54
△지성우66 △차한성72 △채 윤78
△최상엽56 △최순철55 △한부환66
△한승희55 △홍경식70 △홍성무73
△황영하58

◆사대 △강창석66 △곽봉조70

△곽형기71 △곽후섭52 △구본형75
△국해웅63 △김병무64 △김봉근60
△김영국69 △김정기74 △김주화65
△김진규58 △민경현53 △박봉상59
△박세원70 △박승준63 △박용수71
△박지모77 △박찬구56 △박효석70
△성기훈71 △손영목60 △신하영58
△안상수71 △안지원81 △유영채70
△윤용섭61 △이규석66 △이기영68
△이기준67 △이명천68 △이복환70
△이상권80 △이원순45 △이원호68
△이종완72 △이주환53 △이준선69
△전의숙68 △정귀생58 △정기탁74
△정상윤74 △정수룡55 △정재정70
△조 욱68 △조인형60 △최광열73
△최돈형68 △최병환70 △최현섭59
△추인호71 △함오연67

◆상대 △곽윤광60 △구용서60
△김경모61 △김덕기52 △김민경53
△김만유67 △김상남66 △김성규57
△김정우65 △남영태65 △문영도50
△박종민64 △배정운59 △변병주60
△서영택58 △손재환69 △신명수60
△신승철59 △신정철63 △엄수명61
△오강욱56 △우순구53 △우완식57
△유진무62 △윤우진61 △이광수50
△이동혁65 △이상근53 △이상탁64
△이하룡69 △이한희54 △이항철54
△장종록57 △전병운70 △정재탁58
△조문규57 △조중현62 △조창제57
△최영환60 △최준환66 △최형주66

◆생활대 △이미숙74

◆수의대 △김경환80 △김오섭66
△김인호53 △나기식54 △나종극54
△박성권74 △박영찬81 △방극승64
△윤희중54 △이도필49 △이승용75
△임영철74 △정용근67 △최병일59
△최병조76

◆약대 △김광순59 △김성오81
△김장호65 △김정기69 △김태근71
△박대창69 △박만기59 △박승규59
△손인자69 △심우원72 △심현주85
△엄 향81 △오연준56 △원희목73
△윤여표76 △이성구73 △이순석61
△장용택55 △전하창67 △정연진69
△정현경83 △조경일64

◆음대 △김우진77 △김인규65
△김인숙67 △유형웅60 △이동남66
△이신화61 △이오규70 △조창연66
△차정현67

분 담 금

◆미주동창회 11,000달러
◆오스트리아지부 500달러
◆인도네시아지부 500달러

〈지면관계로 의대, 치대, 각 대학원, 특별과정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과 일반회비 납부자 명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5 월 계 : 80,553,200원
평생회비 : 29,900,000원
입 회 비 : 2,330,000원
총 계 : 640,253,200원



서울대학교 동문바둑대회 오로삼매경에 빠져 흑백의 묘미 만끽



◆ 안 내 ◆



1. 본대회의 진행과 운영 방법은 한국기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릅니다.
2. 개인전은 출전자의 기력에 따라 7개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 단체전은 5인이 한 팀이 되어 대국하게 됩니다. (17개팀)
4. 단체전 · 개인전 모두 변형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대국합니다.
5. 대국은 모두 호선 6집반 공제로 하며 10분 자유시간에 30초 초읽기 2회로 제한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대국이 종료되지 않을시 프로기사로 구성된 심판위원들의 판정으로 승패를 결정짓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 인 . 전

■ 최강조			■ A조			■ B조			■ C조			■ D조		
번호	이름	(단과대/입학년도)	번호	이름	(단과대/입학년도)	번호	이름	(단과대/입학년도)	번호	이름	(단과대/입학년도)	번호	이름	(단과대/입학년도)
1	노시정	(자유전공학부 09)	1	김관형	(공과대 79)	1	김문찬	(농생대 83)	1	김연배	(상과대 67)	1	권경덕	(공과대 62)
2	김중대	(글로벌리더십 20기)	2	권오룡	(사범대 56)	2	김현태	(농생대 84)	2	김영환	(공과대 56)	2	기세영	(경영대 91)
3	강호운	(공과대 70)	3	김희천	(자연대 85)	3	김형철	(행대원 94)	3	김용기	(상과대 68)	3	김세윤	(대학원 04)
4	백승환	(공과대 09)	4	박원근	(경영대 72)	4	백진우	(공과대 05)	4	유인수	(법과대 57)	4	김종문	(공과대 50)
5	손병용	(자연대 68)	5	배종덕	(상과대 70)	5	신운호	(농생대 81)	5	장정현	(사범대 78)	5	김준호	(상과대 68)
6	윤석철	(자연대 80)	6	송수준	(공과대 88)	6	염상현	(농생대 00)	6	조영길	(자연대 74)	6	김창영	(공과대 87)
7	김상준	(사범대 07)	7	안성두	(인문대 교직원)	7	이근영	(인문대 99)	7	황정현	(공과대 56)	7	김풍오	(공과대 68)
8	이광우	(농생대 56)	8	유병우	(공과대 75졸)	8	진태훈	(의과대 84졸)	8	강석기	(자연대 87)	8	문승권	(보대원 85)
9	이재철	(농생대 86)	9	이창환	(인문대 73)	9	최기은	(의과대 77)	9	공석모	(약학대 74)	9	배 훈	(공과대 04)
10	임동욱	(치과대 66)	10	이춘호	(공과대 67)	10	황금연	(사범대 50)	10	구영수	(사회대 70)	10	변재등	(문리대 56)
11	조준래	(식품및외식 12기)	11	임도환	(공과대 81)	11	고경순	(사범대 61)	11	구진웅	(공과대 58)	11	서범준	(공과대 01)
12	최준영	(인문대 87)	12	임용준	(치과대 65)	12	김귀훈	(농생대 11)	12	권태일	(농생대 72)	12	신광철	(문리대 56)
13	홍용찬	(상과대 64)	13	정기용	(상과대 71)	13	김준희	(사회대 10)	13	김병식	(상과대 68)	13	옥정식	(공과대 67)
14	권욱진	(공과대 11)	14	최규성	(법과대 68)	14	이재열	(사범대 99)	14	박우성	(사범대 82)	14	이배환	(반도체공동연구소(교직원))
15	박영근	(경영대 79)	15	한박무	(문리대 66)	15	조기웅	(문리대 66)	15	김선현	(법과대 58)	15	이범재	(법과대 58)
16	조태홍	(공과대 70)	16	장태익	(상과대 66)	16	조재근	(사범대 04)	16	김태우	(공과대 89)	16	김흥만	(상과대 66)
17	김형균	(공과대 01)	17	권왈순	(문리대 65)	17	최민호	(공과대 02)	17	김환식	(상과대 68)	17	이종수	(상과대 64)
18	박준영	(공과대 01)	18	김상남	(상과대 66)	18	권오경	(치과대 70)	18	박성진	(약학대 69)	18	이찬도	(사범대 59졸)
19	선석기	(인문대 75)	19	김성기	(문리대 66)	19	김동걸	(치과대 74)	19	박재권	(법과대 58)	19	조기봉	(공과대 58)
20	오경환	(경영대 06)	20	노영식	(사범대 65)	20	김영태	(사범대 교직원)	20	박창욱	(사범대 81)	20	이영철	(상과대 68)
21	오두환	(상과대 68)	21	백무흠	(공과대 84)	21	김용섭	(대학원 83)	21	백훈상	(상과대 66)	21	최창식	(법과대 58)
22	윤권준	(사범대 72)	22	서형배	(인문대 74)	22	김진철	(공과대 67)	22	변종화	(보대원 65)	22	하진구	(정보화본부(교직원))
23	이강운	(치과대 88)	23	이승엽	(약학대 06)	23	김진태	(자연대 94)	23	손원종	(상과대 58)	23	구춘옥	(문리대 58)
24	이상현	(문리대 64)	24	임성빈	(공과대 63)	24	류진열	(법과대 72)	24	신총렬	(상과대 66)	24	김경만	(법과대 58)
25	차효인	(문리대 61)	25	장낙영	(공과대 62)	25	박용수	(공과대 76)	25	오태선	(사범대 74졸)	25	김두용	(공과대 94)
26	임기영	(문리대 60)	26	장인상	(상과대 66)	26	윤용하	(자연대 84)	26	위재훈	(의과대 52)	26	김명담	(미술대 58)
27	김성우	(인문대 74)	27	김영철	(경영대 77)	27	이용환	(공과대 73)	27	이성균	(인문대 83)	27	남수환	(패션산업 4기)
28	조동진	(법과대 63)	28	정기정	(문리대 58)	28	이은철	(공과대 65)	28	이재홍	(의과대 57)	28	박수환	(사범대 65)
29	권혁준	(공과대 03)	29	정범훈	(경영대 76)	29	이필한	(의과대 67)	29	이정규	(공과대 64)	29	박준오	(자연대 90)
30	노근수	(농생대 77)	30	정승현	(농생대 06)	30	장원익	(자연대 11)	30	이태우	(사범대 60)	30	박창신	(공과대 03)
31	최명남	(사범대 69)	31	정주열	(공과대 73)	31	정석권	(문리대 66)	31	이하길	(의과대 51)	31	방지훈	(법과대 07)
32	최재훈	(상과대 68)	32	조장식	(농생대 00)	32	한창수	(문리대 67)	32	정상곤	(상과대 68)	32	이일영	(치과대 66)
33	한용술	(사범대 71)				33	강영진	(문리대 62)	33	홍재현	(법과대 63졸)	33	최성한	(상과대 56)
34	홍순선	(농생대 92)				34	장차희	(의학도서관 교직원)	34	김병학	(의과대 68)	34	장기문	(사범대 65)
35	구종서	(공과대 70)				35	방승현	(사회대 04)	35	서용석	(상과대 66)	35	박희백	(의과대 51)
36	임영식	(공과대 70)				36	윤석태	(사범대 73)	36	김강조	(약학대 64)			
37	김재철	(사범대 73)												
38	이상규	(사범대 75)												

개 . 인 . 전 단 . 체 . 전

■ E조

번호	이름	(단과대/입학년도)
1	김양일	(공과대 56)
2	구슬아	(자연대 04)
3	김재진	(상과대 54)
4	김항진	(공과대 56)
5	송하균	(관리과(교직원))
6	송현석	(공과대 62)
7	양차범	(농생대 57)
8	이광복	(사범대 65)
9	이병주	(의과대 61)
10	이연원	(공과대 83)
11	임종순	(법과대 56)
12	김인호	(문리대 56)
13	장택신	(상과대 71)
14	장세종	(농생대 66)
15	정규중	(농생대 68)
16	허 경	(사범대 60졸)
17	홍성수	(중앙도서관(교직원))
18	김영석	(법과대 95)
19	김원영	(행대원 70)
20	김철영	(경영대 77)
21	방형준	(사회대 01)
22	안병주	(약학대 69)
23	이건희	(사회대 73)
24	이상완	(의과대 55)
25	이지복	(의과대 52)
26	이찬민	(상과대 70)
27	이호건	(사범대 66)
28	홍기표	(공과대 62)
29	홍성인	(법과대 58)
30	장기호	(상과대 66)
31	문승기	(법과대 06)
32	손양호	(관리과(교직원))

■ F조

번호	이름	(단과대/입학년도)
1	김명관	(경영대 82)
2	김용술	(경영대 87)
3	박영오	(사범대 66)
4	박윤근	(의과대 90)
5	박인석	(자연대 84)
6	서태영	(인문대 74)
7	성영환	(공과대 58)
8	신규곤	(음악대 81)
9	양태운	(미래융합기술 4기)
10	양현국	(수의과대 88)
11	유건환	(공과대 56)
12	류혜미	(사범대 10)
13	유광일	(농생대 66)
14	윤진희	(글로벌리더십 18기)
15	이관우	(상과대 66)
16	이석호	(농생대 07)
17	이기홍	(상과대 50)
18	유재경	(공과대 10)
19	이영훈	(문리대 64)
20	이정수	(미술대 58)
21	이철준	(약학대 68)
22	전완식	(정보통신방송 3기)
23	홍영희	(보대원 75)
24	전재홍	(최고산업전략 17기)
25	박종진	(자연대 07)
26	이성원	(공과대 56)
27	강정호	(사범대 07)
28	유계하	(공과대 56)

번호	팀명	이름 (단과대/입학년도)
1	경상기우회 경영대학원동창회	정현석 (농생대 63)
		심명기 (상과대 59)
		최광식 (상과대 59)
		오정일 (상과대 59)
		이무언 (상과대 59)
2	공과대	박세화 (공과대 84)
		김명근 (공과대 77)
		한만철 (공과대 77)
		신우영 (공과대 84)
		이태경 (공과대 85)
3	대전기우회	강신성 (경영대 75)
		송동호 (법과대 82)
		신진교 (공과대 82)
		안정웅 (자연대 82)
		최승용 (경영대 85)
4	문리대	신병식 (인문대 73)
		박치문 (인문대 68)
		서대원 (문리대 69)
		강형근 (인문대 82)
		안성문 (사회대 83)
5	법과대	구상진 (법과대 68)
		김영태 (법과대 60)
		김정일 (법과대 60)
		도준환 (법과대 68)
		황경남 (법과대 72)
6	보대원	조길웅 (보건의료정책 14기)
		강인구(수의과대 59)
		남철현 (보대원 62)
		임국환 (보대원 76)
		남시철 (보대원 65졸)

번호	팀명	이름 (단과대/입학년도)
7	사범대	정원재 (사범대 80)
		최안기 (사범대 70)
		한승수 (사범대 72)
		유충균 (사범대 78)
		김봉래 (사범대 85)
8	상과대	김선환 (사회대 85)
		박정열 (상과대 60)
		연건호 (상과대 66)
		오두환 (사회대 82)
		김 현 (사회대 85)
9	청조회 법대 16회 기우회	김창국 (법과대 56)
		김석조 (법과대 58)
		박정일 (법과대 58)
		배찬린 (법과대 58)
		최덕규 (법과대 58)
10	선정기우회 사범대 국어교육학과 기우회	오건오(사범대 81졸)
		류동렬 (사범대 71)
		최두석 (사범대 76)
		황이수 (사범대 82)
		박일성 (사범대 83)
11	서울대 바둑부 B	이성엽 (자연대 08)
		문창기 (공과대 08)
		이순봉 (공과대 08)
		강지문 (공과대 09)
		한석원 (자연대 10)
12	공대 시니어	이종면 (공과대 79)
		최 훈 (공과대 63)
		이강국 (공과대 65)
		이성철 (공과대 66)
		이승록 (공과대 66)
		장만준 (공과대 80)

번호	팀명	이름 (단과대/입학년도)
13	미술대	김정현 (미술대 65)
		이길원 (미술대 69)
		홍순모 (미술대 69)
		김종선 (미술대 74)
		우병택 (미술대 76)
		장수홍 (미술대 69)
14	서울대 바둑부 A	김동국 (공과대 02)
		강창빈 (사범대 03)
		정은석 (공과대 03)
		노시정 (공과대 06)
		신연철 (공과대 06)
		이호원 (공과대 06)
15	청석회 농생대 기우회	김정렬 (농생대 85)
		김기범 (농생대 81)
		박종호 (농생대 81)
		김 욱 (농생대 82)
		홍창일 (농대생 84)
		김정렬 (농생대 85)
16	호석사 공대 64년 졸업 동기 기우회	구윤희 (공과대 58)
		민규식 (공과대 58)
		유무웅 (공과대 58)
		이영상 (공과대 58)
		이준의 (공과대 58)
		최창환 (공과대 60)
17	약학대	임상웅 (약학대 60)
		최규근 (약학대 60)
		이진수 (약학대 62)
		정문기 (약학대 69)
		곽형준 (약학대 06)
		김상철 (약학대 73)
		윤광수 (약학대 69)

반상반의 오프 더 레코드

선혈이 낭자한 ‘맥심코피배’

□ 글/바둑TV 최정은 PD



오프 더 레코드! 19로 반상의 아웃사이드들이 비보도의 불문율을 깼다.
그동안 반상, 혹은 반외에서 일어난 촌철살인의 이야기들을 반상반외(盤上盤外)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에서 최초 공개한다.

붉은 악마 합성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던 2002년. 나는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평생에 다시 맛보기 힘들 열정을 불사르던 스물셋 꽃다운 청춘이었다. 같은 해 나는 걸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용해 판 세상만 같았던 바둑계와 연을 맺게 되었다. 바둑돌을 바둑판 위의 선 위에 놓아야 하는 것인지, 혹은 선 사이의 면에 놓아야 하는 것인지조차 몰랐던 바둑 문외한. 그러나 “저 우선 바둑부터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할 만큼 정신없던 지난날들이, 결국 나를 바둑인으로 만들었을까? 바둑팬들께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한 편을 소개하게 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입사 3년차인 2004년, 조연출 중에서도 어느덧 중고참으로 선배 노릇을 톡톡히 하던 무렵이다. 당시 맡고 있던 두 개의 프로그램은 [오스람 코리아배 신예연승최강전]과 [맥심코피배 입신최강전]. 공교롭게도 비교체험극과극(?)처럼 25세 이하 신예들만 출전하는 기전과 바둑에서는 신의 경지에 달했다는 9단 입신들만 출전하는 기전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 동생뻘의 프로 기사들과 친해져서 진행이 수월했던 오스람코리아배와 달리, 맥심코피배는 입신이라는 단어의 무게감과 나이 지긋하신 9단 프로기사님들 덕분에 은근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사건의 발원지는 [맥심코피배 입신최강전]이었다.

당시 맥심코피배의 연출자는 바둑TV의 만연니인 H모 선배. 지금은 영업팀으로 자리를 옮겨 기전 유치를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살인미소를 남발하고 계시지만, 당시는 시청률에 목숨 거는 바둑TV 팽귄 여성 PD였다. 맥심코피배 시작 전 H선배의 시청률 끌어올리기 승부수는 바로 바둑방송 고정 프로그램 사상 유례가 없었던 ‘조훈현 국수님 해설 출연!!’이었다.

위낙 바쁘셔서 출전조차 못하시는 기전에 해설이라니.... 일견 허황된 목표 같았지만 H선배와 나는 머리를 맞대고 조국수님을 포섭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고, 결국 우리의 무기는 단 한 가지라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 바로 미인제!!^^

“조국수님, 바둑TV 프로그램 중 연출과 조연출이 모두 미모의 여성인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어요. --..--”

물론 이 논리는 조국수님 설득에 실패했고, “입신들의 수준 높은 대국을 해설하실 분은 조국수님 밖에 없으세요...”라는 설득 논리를 펼친 끝에,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던 조국수님에게서 OK 사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조국수님의 결심이 어려웠음을 짐작하게 했던 것은 당시 조국수님의 어마어마한 스케줄.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대략 주중 3회 정도의 대국과 주말의 바둑행사, 거기에 적지 않게 잡혀있는 해외 일정까지. 정말 하루에도 분초를 아껴가며 본인의 주특기인 속력행마를 펼치던 때였다. 여기에 방송해설까지 겹치게 되었으니.... 다음 소개하는 사건의 배경이 이러했다.

2시 녹화를 30여 분 앞두고 모든 스태프들 스탠바이 상태. 조국수님이 예의 빠른 걸음으로 성큼성큼 스튜디오로 들어오신다.

“조금 늦었나? 미안.... 빨리 온다고 왔는데....”

“아니에요. 분장하시면 바로 오프닝 준비하겠습니다.”

무사히 오프닝 영상물 사전 제작을 마치니 대국자들은 바둑판을 마주한 채 착석, 진행 해설자는 해설실에 착석.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수많은 모니터를 쳐다보며 상황을 살펴 피던 조정실 H선배의 “스탠바이... 큐!!” 사인과 함께 방송 스태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계시원의 멘트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와 함께 바둑판 위에 돌이 놓이기 시작했다.

한편 영상물 플레이를 마친 나의 다음 임무는 해설실로 이동해 연출자와 출연자간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가 되는 것. 시청자들은 눈치 챌 수 없는 카메라의 앵글 밖에 쥐 죽은 듯 앉았다가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연출자의 사인을

보드에 적어 출연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치열한 대국은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스태프들은 클로징 준비를 위해 다시 한 번 긴장의 고삐를 다잡던 그때... 사건이 터졌다. 조국수님의 외마디 비명.

“어? 어?”

‘흠... 형세가 또 요동치나? 조국수님 추임새가 심상치 않군...’ 그러나 괴이하게도 조국수님의 입에서는 별다른 해설 없이 다시금 비명이 흘러나왔다.

“어!! 어!!”

갑자기 진행자 이정원 사범이 내 옆 구리를 쿡쿡 찌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턱밑에 달린 마이크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저 조국수님 쪽을 쳐

나는, 역시 같은 속도로 해설실로 달려와 조국수님께 휴지를 전달했다. 조국수님은 휴지를 뭉쳐 급한 대로 코를 틀어막으며 응급처치에 들어갔고 얼마 후 코피는 멎었다. 당시 나의 움직임을 ‘달려라 하니’가 보았다면 아마 육상을 포기했으리라. ㅎㅎ

일견 사건이 해결되었나 싶었지만 조정실에서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H선배의 목소리.

“해설실에 무슨 일 있니?”

알고 보니 코피를 막아주는 고마운 휴지들이 조국수님 목소리를 현영의 코맹맹이 목소리로 바꿔버린 것. ‘에고, 지금 정신없는데...’ 나는 황급하게 보드판 위에 단 두 글자만을 썼다.

‘코피!!’

“이창호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김인 국수님이라면 “감히 우리 조국수의 코에 피를 묻혀!!”라며 노발대발하셨을 테고... 온갖 불길한 상상에 식은땀이 절로 날 상황이었다.

다보며 다급한 눈짓.

고개를 돌린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국수님의 선홍색 코피!! ‘흐억, 이게 뭘 사태야?’ 조국수님은 눈빛으로 SOS 사인을 날리면서도 왼손으로 흘러내리는 코피를 훔쳐내려,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해설하라 정신이 없는 상황(참고로 바둑방송은 녹화방송이건 생방송이건 큰 구분이 없다). 하지만 돌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위기에 골몰하고 있는 대국자더러 대국 잠시 중지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실로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조정실의 H선배에게 알리고 말고 할 계제가 아니었다. 이때 필요한 건 뭐? 스피~드!! 나는 해설실의 두터운 방음벽을 온몸으로 열어젖힌 후 화장실을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화장실에서 한 움큼 잡히는 대로 휴지를 뜯어낸

다시 H선배.

“헉! 누가?”

다시 급한 마음에 남긴 한 글자.

‘조!!’

이렇게 양 여인네가 사건 해결을 위해 좌충우돌하는 중에 대국은 종국을 향해 치달았고, 붓물 터지듯 흘렀던 코피가 찾아들기 시작했다. 해설판 앞에 위치한 두 사범님. 카메라는 대국실에서 해설실로 넘어왔고, 조국수님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국 총평을 마쳤다. 그의 코 밑 거뭇거뭇한 자국과 짙은 색 셔츠에 남은 희미한 코피의 흔적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그 새 창백하고 수척해진 듯한 조국수님의 얼굴 등. 카메라 밖의 엄청난 사건을 시청자들은 알 수 없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다.



천하의 바둑황제가 해설판을 뒤로 하고 시청자들 앞에서 존안(尊顔)에 코피를 흘렸다면? 바둑팬들께서는 이유 불문하고 조국수님을 혹사시킨 바둑TV를 성토했을 테고, H선배와 나는 경위서와 시말서 등 온갖 종류의 반성문 체험에 나섰으리라. 심지어 “이창호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김인 국수님이라면 “감히 우리 조국수의 코에 피를 묻혀!!”라며 노발대발하셨을 테고... 온갖 불길한 상상에 식은땀이 절로 날 상황이었다.

우리의 고초를 아는지 모르는지 해설

실을 빠져 나온 조국수님은 안부를 묻는 H선배에게 특유의 엄살을 부리신다.

“아... 바둑TV가 날 너무 부러먹네. 힘들어 죽겠어.”

이것이 바로 입신들의 제전 맥심커피배가 선혈이 낭자한 ‘맥심코피배’가 될 뻔했던 사건의 전말이다.

“조국수님, 아무쪼록 허락 없이 에피소드 썼다고 노여워 마시고 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조국수님 화이팅!!”

이것이 신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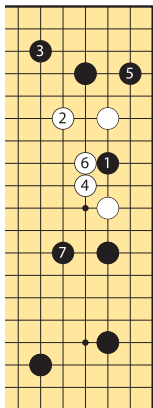
테마도 ▶ 1~14

피차 귀를 하나씩 굳힌 견실한 포진에서 백8의 갈라침부터 13까지는 실전에서 흔히 나오는 모양.

백14는 옛정석이지만 덤이 6집반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새로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후의 진행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흑의 다음 한수가 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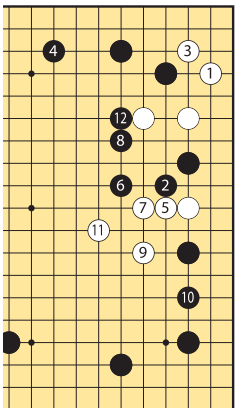
----- 신형이 출현할 때까지의 흐름도 -----



1도

1도 (흑집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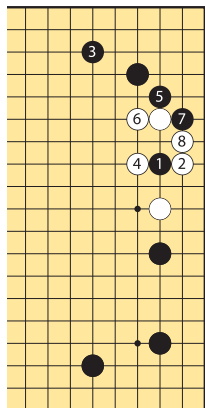
흑1에 대해 백2·4면 흑5까지 귀의 실리가 큼니다. 집차지 면에서 흑이 유리.



2도

2도 (전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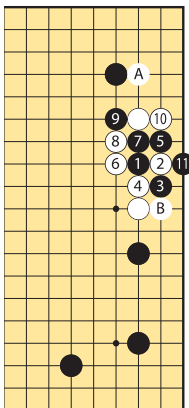
1도 백4로는 1로 달릴 수도 있지만 흑2 이하 12까지 전투형. 이것은 백보다 흑의 자세가 두텁습니다.



3도

3도 (백4가 두터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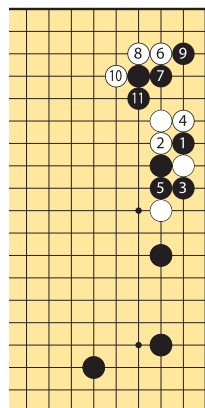
그러므로 최근에는 다시 백2를 찾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흑3으로 받아주면 백4가 두터운 수로 이것은 흑이 불만.



4도

4도 (또 다른 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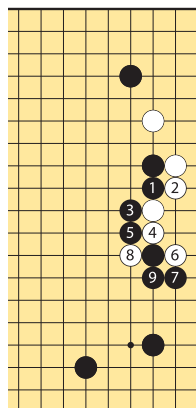
흑3~11도 정석. 계속해서 백은 A나 B를 선택하게 되며 이것도 또 다른 한판입니다.



5도

5도 (난해한 전투)

흑1~11도 정석의 한 형태. 이후는 난해한 전투가 예상되며 힘의 우열에 따라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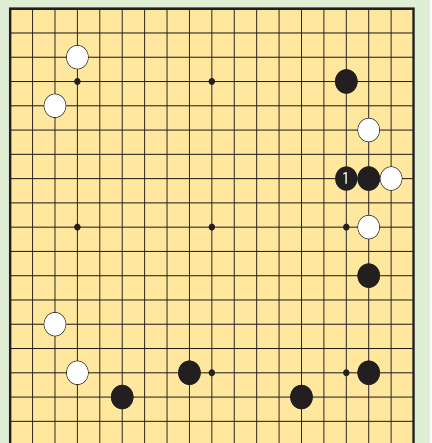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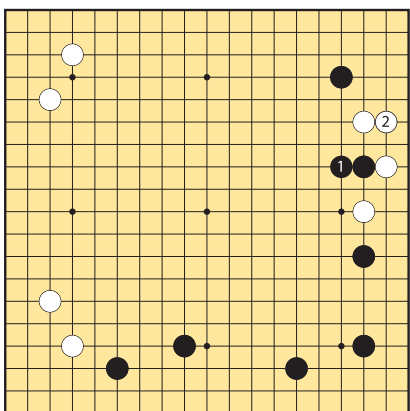
6도 (최근의 연구)

흑1~7은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아직 결론은 확실치 않습니다.

신형-기묘한 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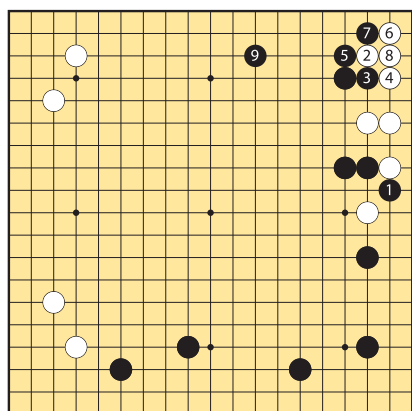
흑1. 이런 수를 본 적이 있는지... 중양을 향한 세력 지향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철주라고 보기에 어려운 이 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1형 1도

제1형 1도 (귀를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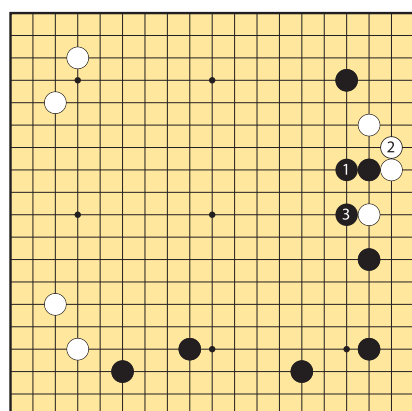
이 모양은 우변의 공방이 초점이므로 귀를 중시하는 백2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1형 2도

2도 (백, 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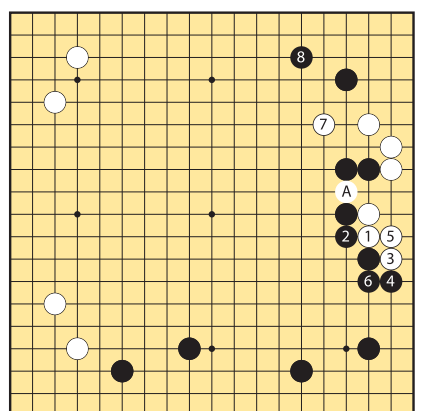
우선 흑1에 막게 되어 흑은 대만족. 백2~9를 예상해도 백은 2선에 치우쳐 있어 이 진행은 흑이 좋습니다.



2형 1도

제2형 1도 (귀쪽으로 끌면)

그렇다면 백의 응수는 우선 2로 귀쪽으로 끄는 수가 첫 번째 안이 됩니다. 이에 대해 흑은 3의 불임이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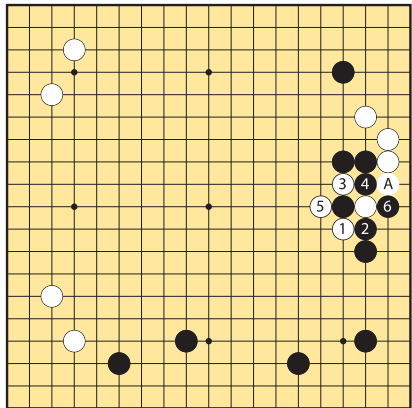


2형 2도

2도 (흑,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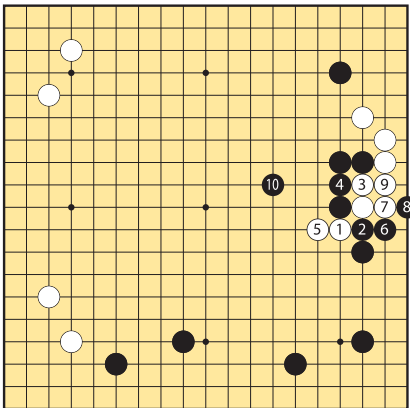
계속해서 백1·3은 흑모양을 굳혀주는 수. A의 단점도 노릴 수 없으므로 백1·3은 속맥입니다. 이상 흑도 8로 지켜 공격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백으로서는 우하 흑을 맛 좋게 굳혀준데다 우상도 거들어준 형국이므로 대안을 구해야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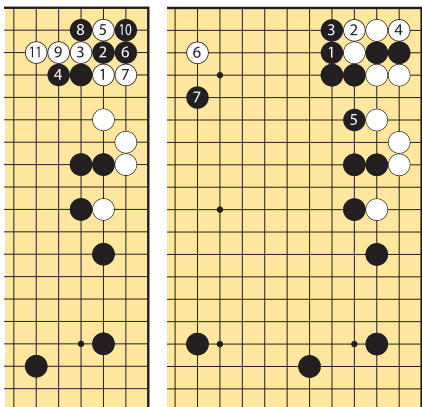
2형 3도

3도 (패는 두렵지 않다)
백1의 젓힘은 흑모양에 단점을 만들어 멀리서 우하 흑모양 침투를 노리려는 의도. 그러나 흑2가 당연하면서도 굳건한 끊음으로 백3·5에는 흑6까지. 계속해서 백A는 흑이 따낼 차례의 패여서 백은 적절한 팻감이 없습니다. 백1·3은 불발.



2형 4도

4도 (흑, 충분)
백1~5는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지만, 흑10까지면 백이 부담스러운 전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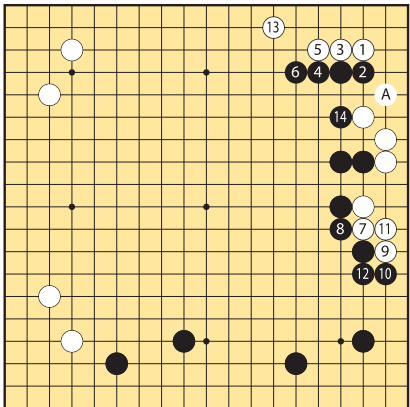


2형 5도

2형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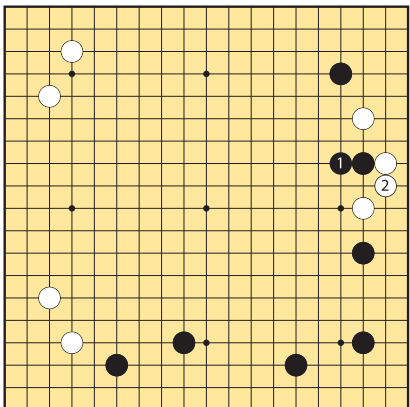
5도 (백의 대책)
백은 우측을 보류하고 1로 붙여 타개를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흑2면 3의 끊음. 다만 백5·7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에서 사는 진형을 택하면 바둑이 어려워집니다.

6도 (흑, 우세)
5도 흑8로는 1·3이 간명. 흑5로 봉쇄해 중앙을 물샐틈없이 싸발라서는 흑의 필승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백6에는 흑이 호쾌. 흑5는 발은 늦지만 놓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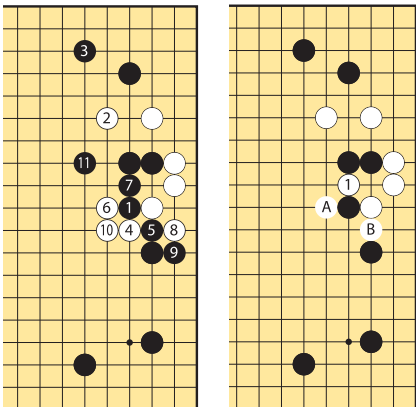
2형 7도

7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백은 5도 백1의 붙임으로 3·5에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흑6까지 선선히 받아준 다음 12까지 두터움을 구축해 충분합니다. 이 갈림은 흑A가 우변 백의 사활에 선수로 들어 백집은 별 게 없으며 흑14가 두터움의 완성형으로 백이 어렵습니다.



3형 1도

제3형 1도 (변으로 끝면)
지금은 우하 흑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백은 2쪽으로 끄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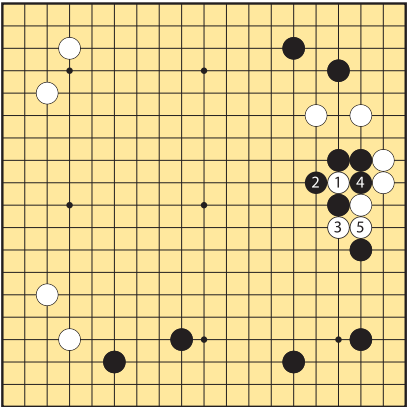


3형 2도

3형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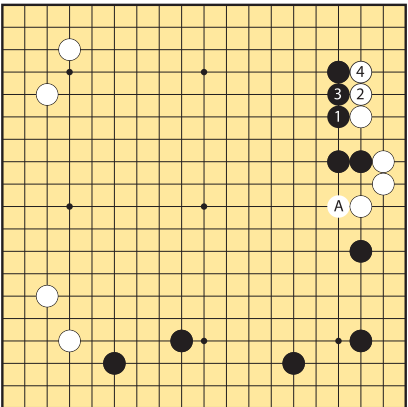
2도 (젓힘은 무리)
흑1의 붙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흑1은 좋은 수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백4의 젓힘은 무리. 흑은 과감히 5로 끊어 일전을 불사합니다.

3도 (끼움이 맥)
2도 백4로는 1의 끼움이 맥입니다. 이수로 흑은 괴롭습니다. 어느 쪽에서 몰아도 수습이 여의치 않으며 A로 뺄어도 백B로 나오면 역시 얇은 형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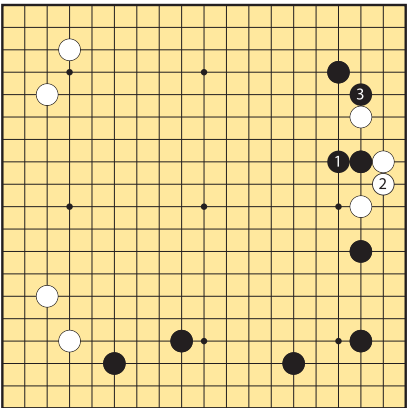
3형 4도

4도 (흑, 최악)
백1에 그래도 흑2로 단수친다면 백3·5로 탈출을 허용해 대실패. 흑2를 3에 뺀 것 역시 백2로 힘차게 뺀어 불만입니다. 그러므로 애초 2도 흑1의 붙임은 무리였던 것입니다.



3형 5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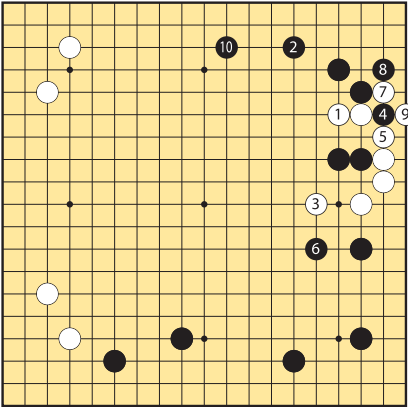
5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흑1로 붙이는 것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 백은 묵묵히 2·4로 들어가 귀의 실리가 큼니다. 게다가 흑A로 봉쇄하더라도 이후 젓혀나오는 뒷맛이 남아 이것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3형 정해 1도

제3형 · 정해 1도 (마늘모붙임)
지금까지 붙이는 수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만 붙여서는 신통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백2에는 흑3의 마늘모붙임이 유연한 착상으로 이 한수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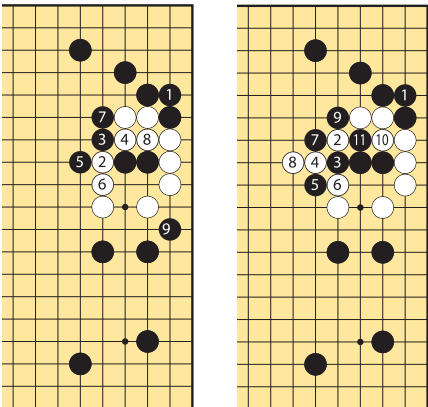
2도 (큰 곳을 모두 차지)
백1로 올라서면 백은 모양을 정비합



3형 정해 2도

니다. 흑2~6이 그것으로 백3은 정수. 백7·9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곳이지만, 흑10까지 우상을 차지하고 6으로 우하도 지키게 되어 이것은 흑이 활발한 진형이라 하겠습니다.

3도 (끊어잡는 것이 큰 이유)
2도 백7·9는 보기 보다 급한 곳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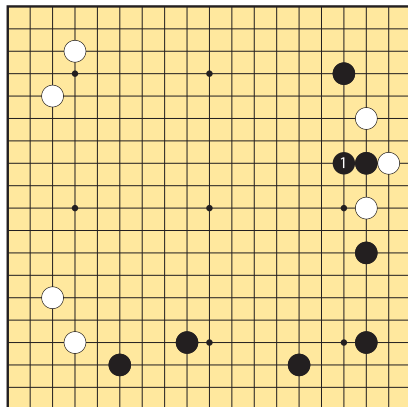


3형 정해 3도

3형 정해 4도

다. 백이 7·9를 게을리 하면 흑1의 이음이 큰 곳으로 3 이하 7도 교묘한 활용. 흑9로 근거까지 위협 당하면 백은 더 이상 둘 마음이 싹 가실지도 모릅니다.

4도 (백, 손해)
백2라면 흑은 당장 중앙을 움직입니다. 제자리에서 맴도는데 백에 반해 흑은 활발한 모양. 이상 이 이음이 큰 이유였습니다.



3형 정해 5도

5도 (결론)
세력으로도 좋고, 실리로도 좋은 흑1.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사용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현대바둑 60년



한성기원 창립-현대바둑 스타트(1945년)

현대바둑을 보급하기 시작한 조남철 9단이 1945년 11월 한국현대바둑의 기원이 된한성기원을 창립했다. 한성기원은 이후 48년 조선기원, 49년 대한기원으로 개칭되는데 이어 1954년 사단법인 한국기원으로 변모, 현 (재)한국기원의 모태가 됐다.



사상 첫 한·중(대만) 교류전(1955년)

1955년 3월 최초의 공식 국제대회인 제1회 한·중 바둑교류전(대만)이 개최됐다. 조남철·김봉선·장국원·민영현이 출전한 한국이 16승 8패로 우승, 금의환향했다.



선구자 조남철 독주시대(1956~65년)

1945년 해방 직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한국바둑계는 조남철 9단의 독주시대였다. 국수 1위전 원년 우승자 조남철9단은 9기까지 단 한 차례도 우승을 놓치지 않으며 9연패의 대위업을 달성한다.



국내 최초기전 국수전 출범(1956년)

국내 최초의 공식프로기전 국수1위전(현 국수전, 동아일보 주최)이 1956년 출범했다. 국수1위전은 중간에 국수전으로 이름을 바꿔 2005년 현재 제49기를 맞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전이다.



최초의 TV기전 탄생(1964년)

국내 최초의 TV기전이 탄생했다. 1964년 제1기 TV프로기전에서 김인 5단이 우승컵을 안았다. 바둑이 TV와 만난것은 1958년이 최초이며, KBS-TV에서 TV기원을 개설, 고정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했다.



제2세대 김인 시대(1966~75년)

김인 9단은 조남철 9단의 비통을 이어 60년대 중후반과 70년대 중반을 장악, 제2세대 대표기사로 활약했다. 김인9단은 1961년 최고승률(20승 2패, 90.9%), 68년 40연승(최다 연승 부문 2위)을 거두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67년김인 6단(왼쪽)은 제8기 최고위전에서 조남철 8단을 3대0으로 꺾고 타이틀을 쟁취, 김인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한성기원 창립-현대바둑 스타트(1945년)

현대바둑을 보급하기 시작한 조남철 9단이 1945년 11월 한국현대바둑의 기원이 된한성기원을 창립했다. 한성기원은 이후 48년 조선기원, 49년 대한기원으로 개칭되는데 이어 1954년 사단법인 한국기원으로 변모, 현 (재)한국기원의 모태가 됐다.



19세 서봉수 명인 탄생(1972년)

1972년 5월 5일 만 19세의 서봉수 2단(오른쪽)이 당시 일인자였던 조남철 8단을 3대1로 꺾고 명인을 쟁취했다. 한국바둑사의 첫 혁명적 정상교체로 1961년 이후 근 20여 년을 군림해온 조남철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바둑계는 세대교체라는 제3의 물결을 맞이하게 된다.



조훈현 시대 개막(1974~1995년)

조훈현 9단은 1974년 제14기 최고위전에서 당시 일인자였던 김인 7단을 3대0으로 꺾고 첫 타이틀을 거머쥐며 조훈현 시대를 예고했다. 조훈현 7단(왼쪽)은 80년 제19기 최고위전에서 서봉수 6단을 3대1로 꺾고 우승, 1차 전관왕(9관왕)을 달성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전관왕에 올라 천하를 호령했다.



조치훈 명인 등극, 열도 정벌(1980년)

조치훈 8단이 1980년 제14기 일본 명인전에서 오타케 히데오(大竹英雄) 9단을 4대1(1무)로 물리치고 우승, 한국기사로는 처음으로 열도를 정벌했다. 이로써 조치훈은 기사로는 최초로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12월 19일). 이후 1983년 일본바둑사상 첫 3대 타이틀(棋聖·名人·本因坊)을 석권, 이른바 대삼관에 올라 일본 일인자로 군림했다.



조훈현 전성시대(1986년)

한해한해 빛을 더해가던 조훈현 시대는 1986년 절정에 이른다. 6월 20일 벌어진 제3기 박카스배 결승3국에서 조훈현 9단은 하찬석 7단을 3대0으로 물리치고 11관왕에 오르며 제3차 전관왕의 위업을 달성한다.



◀ 이창호 시대 개막(1989~현재)

14세의 여드름소년 이창호가 1989년 8월 8일 생애 첫 타이틀을 획득, 이창호 시대의 개막 축포를 쏘아 올렸다. 이창호 3단은 제8기 KBS바둑왕전에서 김수장 7단을 2대0으로 꺾고 우승, 세계최연소 타이틀 획득 기록을 세웠다. 이3단은 그 이듬해 2월 제29기 최고위전에서 스승 조훈현 9단을 3대2로 물리치고 우승, 본격기전 타이틀을 따기에 이른다.

백두산 천지대국(1990년)

1990년 9월 16일 민족의 영산(靈山)인 백두산 천지에 서 조훈현 9단(왼쪽)과 유창혁 4단이 제2기 기성전 도전1국을 벌였다. 당시 대국은 중국 공안의 저지로 8수만에 중단, 무승부로 처리됐다. 유창혁 4단이 조훈현 9단을 4대1(1무)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이창호 세계최연소 챔프 등극(1992년)

1992년 1월 27일 이창호 5단(오른쪽)이 제3회 동양증권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린하이펑(林海峰) 9단을 3대2로 꺾고 우승, 세계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17세)을 세웠다. 이날 좀처럼 웃음을 보여주지 않았던 '돌부처' 이창호의 입가에 미소가 활짝 피었다.



‘천재소년’ 이세돌 비상(2002년)

‘천재소년’ 이세돌이 2002년 비상(飛翔)을 시작했다. 8월 3일 일본에서 벌어진 제15회 후지쯔(富士通)배에서 유창혁 9단을 꺾고 세계대회 첫 정상 정복에 성공한 이세돌 3단은 이후 네 차례나 우승을 보태며 총 5회 세계대회 우승을 일궈냈다.



사상 첫 바둑학과 개설(1996년)

바둑이 마침내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되어 대학 캠퍼스로 들어갔다. 일부 대학에서 바둑특기생을 모집한 데 이어 1996년 11월 명지대학교에서 세계최초로 바둑학과를 개설했다. 이로써 바둑의 학문화, 과학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사상 첫 북한 금강산 대국(2005년)

2005년 2월 19일 이창호 9단과 최철한 9단이 북녘 땅으로 들어가 금강산호텔에서 제48기 국수전 도전3국을 벌였다. 금강산 대국은 남북분단 이후 북녘 땅에서 두어진 최초의 대국이다.

출처 : ‘2009바둑백서’ (재)한국기원